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심리학석사 학위논문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심리적 특성:

초기 부적응 도식을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전 혜 린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심리적 특성:

초기 부적응 도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훈 진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전 혜 린

전혜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김 청 택 (인)

부위원장 안 우 영 (인)

위 원 이 훈 진 (인)

국 문 초 록

대학 시기에 나타나는 혼술은 이후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선행 연구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음주 동기, 대인관계 특성 및 평소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 연구에서 음주 유형을 구분한 기준에도 한계가 있어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및 심리적 부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초기 부적응 도식의 활성화가 정서 변화 및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315명의 자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 유형을 네 집단(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 대처 동기가 더 높았으며, 평소 경험하는 우울과 사회불안의 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자기 부호화 검사(self-referent encoding task) 및 우연회상 과제를 통해 혼술 집단 및 사회 음주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 관련 정보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실험 과제로 활성화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정서 변화와 음주 갈망을 유발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총 268명을 대상으로 스크리닝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실험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66명(혼술 집단 18명, 사회 음주 집단 4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형용사에 대한 인정 반응 속도가 빨랐고, 사회 음주 집단은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 형용사에서 더 많은 인정 반응을 보였다. 또한, 혼술 집단은 실험 후 음주 갈망이 감소했으며, 사

회 음주 집단은 부정 정서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문제 음주의 취약성 요인으로 알려진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처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음주 동기 및 평소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에서도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과 관련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음주 유형에 따른 치료적 개입 및 장기적 위험 요인에 대한 심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혼술, 사회 음주,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우울, 사회불안

학 번 : 2020-22074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재원으로 미래기초 사회과학연구인력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목 차

국문초록 ····· i

서 론 ····· 1

혼술 및 사회 음주의 정의와 구분 ····· 3
음주 유형과 초기 부적응 도식 및 대처 양식 ····· 4
음주 유형에 따른 음주 동기 및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 ····· 11
초기 부적응 도식의 측정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필요성 ····· 14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7

연구 1. 문제음주자의 음주 유형별 심리적 특성 비교: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및
우울과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 19

방법 ····· 23
결과 ····· 28
논의 ····· 35

연구 2.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도식 정보 처리와 음주 갈망의 변화
: 자기 부호화 검사를 중심으로 ····· 41

방법 ····· 44
결과 ····· 49
논의 ····· 57

종합논의 ····· 61

참고문헌 ····· 70

부　　록 ····· 85

영문초록 ····· 107

표 목 차

표 1. 음주 유형 집단 간 성비 비교 ····· 28
표 2. 음주 유형 집단 간 연령 비교 ····· 28
표 3. 문제 음주,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우울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 ····· 30
표 4. 집단 간 문제 음주 수준의 차이 ····· 31
표 5.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 ····· 32
표 6. 집단 간 대처 양식의 차이 ····· 33
표 7. 집단 간 음주 동기의 차이 ····· 34
표 8. 집단 간 우울과 사회불안의 차이 ····· 34
표 9. 음주 유형 집단 간 성비 비교 ····· 49
표 10. 음주 유형 집단 간 연령 및 우울 수준 비교 ····· 49
표 11. 집단 간 인정 반응과 부정 반응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 ····· 50
표 12. 집단 간 반응 속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 ····· 51
표 13. 집단 간 인정 반응 속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 ····· 52
표 14. 집단 간 형용사 회상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 ····· 53
표 15. 집단별 실험 전후 부정 정서 변화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 ····· 54
표 16. 집단 간 긍정 및 부정 정서 변화량의 차이 ····· 54
표 17. 집단별 실험 전후 음주 갈망 변화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 ····· 55
표 18. 집단 간 실험 후 음주 의향의 차이 비교 ····· 55

표 19. 처리 편향 정도, 정서 변화량 및
음주 갈망 변화량 간의 상관 ····· 56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2의 실험 과제 절차 ····· 46

서 론

중독자들의 삶을 연구한 임상의 Gabor Maté(1944~)는 알코올, 약물, 특정 행위의 중독을 “위안 혹은 충족이라는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조절하기 위한 우리 밖의 무언가를 찾는 행동”으로 정의한다(Jamison, 2021). 중독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하며, 한순간의 회피는 잠깐의 안도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고 다시 고통을 야기한다. 따라서 개인이 도망치고자 하는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다루지 않고서는 안도감을 향한 갈망은 계속될 것이며, 자기 파괴적인 중독 행위는 반복될 것이다(Jamison, 2021).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는 다양하다.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혹은 하루를 알차게 보낸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음주를 하기도 한다. 특히 대학생들은 주로 사회적 동기에 의해 음주를 하며, 사회 음주(social drinking)는 대학생들의 주요한 음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Gonzalez et al., 2009). 사회적으로 대학생 음주는 허용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대학 시기는 입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위험 감수(risk-taking)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량과 음주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질병관리본부, 2017; 한소영 등, 2005). 문제는, 대학 시기에 부적응적으로 형성된 음주 습관은 이후 심각한 문제 음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Wechsler et al., 2000). 여기서 문제 음주(problematic drinking)란 과도한 음주량과 음주 빈도 및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된다(박아름 등, 2018).

최근의 연구들은 대학생 집단에서 증가하는 혼술(solitary drinking), 즉 ‘혼자서 마시는 술’과 문제 음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Skrzynski & Creswell, 2020). 사회 음주가 주류를 이루는 대학생의 음주 문화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일탈적인 현상이며, 대학 시기에 관찰된 높은 혼술 빈도는 이후 알코올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된다(Degenhardt et al., 2015). 또한,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과 비교할 때 혼술 집단에서 더 높은 알코올 소비량과 더

많은 음주 관련 문제가 나타났다(Creswell et al., 2014; Gonzalez et al., 2009).

문제 음주 집단을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으로 구분한 선행 연구들은 두 집단이 음주의 형태 및 빈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혼술 집단의 음주는 음주 동기 중 대처 동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음주 집단의 음주는 사교 동기, 동조 동기와 관련이 있었다(Gonzalez & Skewes, 2013). 또한, 사회 음주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 혼술 집단은 평소 더 많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 & Skewes, 2013).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음주 유형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고, 각 집단의 음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성 요인에 대한 탐색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 음주와 관련된 변인 중 음주 동기는 근접 변인(proximal factor)으로 가정된다(Skrzynski & Creswell, 2020). 그렇다면, 어떠한 심리적 취약성이 두 집단의 음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문헌 중 음주 유형을 구분한 연구는 약 6편에 그치고, 대학생 집단의 혼술이 이후 알코올 사용장애를 예측하는 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Degenhardt et al., 201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문제 음주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 한계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두 음주 유형과 관련된 심리적 취약성 요인 및 심리적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의 취약성 요인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처 양식, 관련 심리적 변인으로 음주 동기와 우울 및 사회불안을 설정해 각 변인들에 대한 혼술 집단 및 사회 음주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혼술 및 사회 음주의 정의와 구분

혼술(solitary drinking)이란 '혼자서 마시는 술'의 준말로 집, 식당 혹은 외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에서부터 비음주자(non-drinking others)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비교적 넓은 정의를 가진다(이혜규, 2017; Skrzynski & Creswell, 2020). 사회 음주(social drinking)란 친구, 지인들과의 사교 모임, 일과 관련된 회식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이혜규, 2017).

음주 유형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은 혼술 집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음주 유형을 구분한 기준 또한 연구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Williams 등(2015)의 연구에서는 혼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집단과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으로 음주 유형을 구분한 반면, Skrzynski 등(2018)의 연구는 전체 음주 빈도 중 혼술 빈도와 사회 음주 빈도를 비교하여 더 많은 빈도를 보이는 음주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만약 혼술 경험의 유무로 음주 유형 집단을 구분할 경우, 혼술 집단에 음주 빈도 및 음주 형태가 이질적인 음주자들이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 혼술을 경험해본 것 자체가 문제 음주와 연관된 것은 아니며, 빈번한 혼술로 인해 알코올에 중독되는 양상이 음주 관련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rgault & Demers, 1997). 따라서 단순히 혼술 경험 유무에 따라서만 혼술 집단을 구성하면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 음주만 하는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사회 음주를 병행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이혜규, 2017; Gonzalez et al., 2009), 혼술 집단에 혼술과 사회 음주를 병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면서 집단의 문제 음주 심각성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즉,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위험 음주자 혹은 병행 음주자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혼술 집단을 구분해 사회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음주 유형과 초기 부적응 도식 및 대처 양식

Young 등(2003)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알코올 사용장애를 포함한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 가정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아동기의 5가지 핵심적 욕구들(타인과의 안정 애착, 자율성, 자유로운 정서와 욕구의 표현, 자발성과 놀이, 현실적인 한계와 자기 통제)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달하는 부적응적 신념이다(D'Zurilla et al., 2010). 초기 부적응 도식은 유해한 아동·청소년기 경험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최진미, 김남재, 2009), 자기, 타인, 세상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틀로 자리 잡게 된다(Young et al., 2003).

초기 부적응 도식은 단절과 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과잉 경계와 억제, 타인 지향성 및 손상된 한계의 5가지 인지 도식 영역과 각 영역의 하위 차원인 18가지 도식으로 구분된다(Young, 1994).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은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며, 이 도식이 발달한 개인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Rezaei & Ghazanfari, 2016; Young, 1994). 특히, 단절과 거절 도식을 가진 개인은 평소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Stiles, 2004; van Wijk-Herbrink et al., 2018).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도식을 가진 개인은 타인과의 분리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독립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진다(Young, 1994). 과잉 경계와 억제 도식 영역은 자기표현 및 자발적인 충동과 느낌을 억제하는 경향과 관련되며, 이 도식이 발달한 개인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Mojallal et al., 2021; Young et al., 2003).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을 가진 이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중요시하고 내면에 대한 성찰과 자기표현이 부족한 특성을 보인다(유성진, 권석만, 2008). 마지막으로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은 내적 한계에 대한 책임감 부족, 정서나 충동 억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신념으로, 이 도식을 가진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영혜, 2009; Young et al., 2003).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는 과거 아동기 경험의 기억, 감정, 신체 감각과 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기 사건과 비슷한 생활 사건에 처할 때 활성화되며, 도식이 반영하는 아동기의 기억, 감정, 신체 감각, 인지 등의 표상을 재현하게 된다(Young et al., 2003). 예를 들어,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수용과 애정 욕구를 충족받지 못해 '결함/수치심' 도식이 발달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판, 거절과 관련한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McGinn 등(1995)에 따르면, 도식은 분노, 수치심과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와 외로움, 그리고 파괴적 관계 및 불면증과 같은 신체화 증상 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문제 음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알코올 사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s et al., 2010). 대표적으로 긴장 감소 이론(tension-reduction model)은 알코올 사용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으로 가정한다(Conger, 1956; Lin et al., 2020).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알코올 사용과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Dvorak et al., 2014), 긴장 감소 이론에 관한 혼재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Heppner 등(2004)은 스트레스 사건 및 부정적 경험 자체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기보다는 특정한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 생활 사건을 경험할 때 더욱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Young(1994)이 제시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에 해당하며, 특정 스트레스 사건이 도식을 활성화시키면 개인은 도식 관련 기억과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된다(Ball & Young, 2000; Pauwels et al., 2013; Riso et al., 2007; Roper et al., 2010). 음주는 도식 활성화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자기 패배적이며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방해한다(Young, 1994; Young et al., 2003).

경험적 연구 결과, 알코올 의존 집단은 비중독집단에 비해 초기 부적응 도식 점수의 총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ecouvelaere et al., 2002; Riso et al., 2007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물질 사용장애 환

자들의 초기 부적응 도식 점수가 정상 대조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정순, 정현희, 2012).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은 어린 시절 학대, 방임 등의 역경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며, 초기 부적응 도식도 이러한 아동기 경험으로 인해 발달한다는 것을 토대로 할 때,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알코올 사용장애 양상을 보이는 이들에게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Shorey et al., 2013). 이중초점도식치료 모델(Dual Focus Schema Therapy: DFST; Ball & Young, 2000)은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이 활성화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 표현으로 물질 사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더불어 Riso 등(2007)은 타인 지향성 도식이 물질의 남용을 촉발할 수 있고, 역기능적 대인관계 맥락에서 해당 도식이 촉발될 때 물질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단절과 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도식 영역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 및 부정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물질 의존은 물질 중독 치료 이후에도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Riso et al., 2007). Roper 등(2010)에 따르면 물질 남용은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 정서를 회피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철수, 심리적 철수, 자극 추구, 중독적 자기 위로를 포함한 여러 도식 회피 방법들은 심각한 물질 중독 양상을 보이는 이들에게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Young, 1994; Young et al., 2003; Riso et al., 2007).

문제 음주와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문제 음주에 기여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들이 도식의 활성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Ball & Young, 2000; Brotchie et al., 2004; Riso et al., 2007). 하지만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Decouvelaere 등(2002; Riso et al., 2007에서 재인용)과 Pauwels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 희생(self-sacrifice) 도식이 알코올 문제를 예측하는 도식으로 나타났지만, Roper 등(2010)과 Shorey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 희생 도식과 알코올 문제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음주 집단 내의 음주 유형을 구분할 때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음주 동기 및 평소 경험하는 부정 정서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대인관계 특성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두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초기 부적응 도식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혼술 집단의 특징은 사회적 불편감(social discomfort)과 타인으로부터 철수하는 경향성이다(Goldstein et al., 2019; Skryznski et al., 2018). Goldstein 등(2019)은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 감정 등을 잘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관여나 지지가 부족한 특징을 보이는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혼술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혼술 집단은 평소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의 음주는 사회적 지지 추구와는 부적 상관을, 사회적 철수(social withdrawal)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Goldstein et al., 2019). 또한, 혼술은 행동 억제의 부족 및 충동성과 연관된 음주 양상으로, 충동성과 혼술의 관계는 부정 정서를 통제하고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Garofalo & Wright, 2017). 요컨대, 선행 연구들에서 혼술 집단의 문제 음주는 정서적 억제, 대인관계 불안 및 철수, 그리고 충동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 음주 집단은 주로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로 음주를 하며, 특히 동조 동기는 문제 음주의 재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kins, 1997). 동조 동기로 인해 사회 음주를 하는 이들은 음주를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대로 인식하며, 또래의 음주 규범에 따르고 사회 집단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다(Borsari & Carey, 2001; Perkins, 1997). Neighbors 등(2004)은 사회적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걱정하는 이들은 아동기에 통제적이고 조건적인 양육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통해 자기 가치(self-worth)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대학생 음주의 사교 및 동조 동기, 그리고 사회 음주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Neighbors et al., 2004).

요컨대, 초기 부적응 도식은 문제 음주를 설명하는 근원 변인(distal factor)으로 볼 수 있지만(Shorey et al., 2015), 선행 연구에서 문제 음주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도식 영역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 또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를 예측하는 음주 동기가 상이하게 나타난 점과 두 집단과 관련된 정서 및 대인관계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두 집단과 연관된 초기 부적응 도식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같은 도식을 가졌더라도 도식의 활성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은 다르다(Young et al., 2003). 대처(coping)란 '개인의 내적 요구와 외부 환경이 개인이 가진 자원을 넘어설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김영혜(2009)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대처가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정한다. 개인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유발하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행동적, 인지적, 혹은 정서적 대처 방략을 발달시키게 된다(김주미 등, 2011; Young et al., 2003). 부적응적 대처는 도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하도록 돕지만, 도식의 자각을 어렵게 만들고 도식을 영속화하며 약물을 남용하는 등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Young et al., 2003). 선행 연구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응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 양식의 사용이 우울과 불안, 물질 남용과 같은 정신장애와 대인관계 어려움, 성격장애의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김주미 등, 2011; Schmidt et al., 1995; Young et al., 2003).

대처 양식(coping styles)이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다(김주미 등, 2011). 연구자들마다 대처 양식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Heppner 등(1995)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통합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을 토대로 대처 양식을 사려형

대처 양식(reflective coping style), 억제형 대처 양식(suppressive coping style), 반동형 대처 양식(reactive coping style)으로 구분하였다. 사려형 대처 양식은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동귀, 박현주, 2009). 억제형 대처 양식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하는 등 문제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대처 경향성을 의미하며(유정순, 정현희, 2012; 이동귀, 박현주, 2009; Heppner et al., 1995), 반동형 대처 양식은 강렬한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해결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영혜, 2009; 이동귀, 박현주, 2009). 평소 반동형 대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들은 부정 정서를 적절하지 않게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넘겨짚는 등의 성급함을 보인다(유정순, 정현희, 2012; Heppner et al., 1995). Heppner 등(1995)의 연구에서 사려형 대처 양식은 적응적 문제 해결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지만, 억제형과 반동형 대처 양식은 적응적 문제 해결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억제형 대처 양식은 문제 음주의 증가를 예측하는 대처 양식으로 나타났다(Carver & Scheier, 1994; Evans & Dunn, 1995; Karwacki & Bradley, 1996; Laurent et al., 1997).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는 이들은 문제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함으로써 부정적 정서 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며(French, 2007), 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적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Hasking et al., 2011). 특히, 억제형 대처 양식을 보이는 음주자들은 알코올 사용이 긴장을 낮추고 자신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음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asking et al., 2011). 반면, 적극적 문제 중심 대처 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의 문제가 적었다(Ebata & Moos, 1991).

이처럼 억제형 대처 양식은 문제 음주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 간 억제형 대처 양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Luoma 등(2020)

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회피하는 경향성이 혼술 집단의 음주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사회 음주 빈도는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억제형 대처 양식은 혼술 집단의 주요 음주 동기인 대처 동기와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 음주 집단의 주요 음주 동기인 사교 동기와는 관련이 없었다(Hasking et al., 2011). 선행 연구들에서 두 집단이 억제형 대처 양식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문제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대처 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다른 대처 양식 분류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회피적 대처(avoidant-coping) 뿐만 아니라 정서 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 또한 음주와 관련된 변인으로 가정한다(Cooper et al., 1988; Feil & Hasking, 2008; Fromme & Rivet, 1994; Windle & Windle, 1996). 정서 중심 대처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기보다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과 연관된 대처 방식을 뜻하며(이동귀, 박현주, 2009), 여기에는 분노, 공격성 등의 부적절한 정서 표출, 문제와 거리 두기, 사회적 지지 추구 및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려는 대처 양상 등이 포함된다(Cooper et al., 1988; French, 2007). 이처럼 정서 중심 대처는 이질적인 대처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서 중심 대처와 음주와의 관계도 혼재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Hasking 등(2011)에서 사회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서 중심 대처는 음주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ppner 등(1995)은 정서 중심 대처를 문제 상황에 대한 회피(억제형 대처)와 정서적 반응(반동형 대처)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었기 때문에(이동귀, 박현주, 2009), 정서 중심 대처와 음주에 관한 혼재된 연구 결과를 Heppner 등(1995)의 대처 분류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강렬한 감정 반응 및 인지적 왜곡과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Townshend와 Duka(2003)의 연구에서 사회 음주자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화, 혐오, 두려움 등의 얼굴 표정을 더 강한 정도의 정서 표현으

로 지각하는 등 다른 사람의 정서 강도를 과대 추정하는 왜곡을 보인 점과 혼술 집단은 정서적 억제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Goldstein et al., 2019)을 토대로 할 때, 두 음주 유형 집단은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음주 유형에 따른 음주 동기 및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

선행 연구들은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음주 동기(drinking motives)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Gonzalez et al., 2009; Skrzynski & Creswell, 2020). 고양 동기(enhancement motive), 사교 동기(social motive), 대처 동기(coping motive), 동조 동기(conformity motive)로 구분되는 음주 동기 중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사교 동기와 또래 및 동료의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 위한 동조 동기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Borsari et al., 2001; Halim et al., 2012).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는 사회 음주자들은 술을 사회적 윤활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피하고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기 위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sari & Carey, 2001). 특히 대학생들은 음주를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최정화, 노기영, 2016), 동료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고 승인을 얻기 위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sari et al., 2001).

반면, 혼술 집단의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사교 동기 및 고양 동기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 et al., 2009). 혼술 집단의 음주량을 예측하는 음주 동기는 대처 동기로(이혜규, 2017), 경험 표집법을 통해 혼술에 선행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을 탐색한 Creswell 등(2015)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갈등은 혼술 소비의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혼술 집단은 우울, 무망감 등의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혼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eswell et al., 2015; Gonzalez et al., 2009; Gonzalez & Skewes, 2013). 혼술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기보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부

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택한다(Gonzalez & Skewes, 2013).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대안적 방법을 택하기 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에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혼술은 문제 음주에 더 취약한 음주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Gonzalez & Skewes, 2013).

이처럼 음주 유형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은 두 집단이 음주 동기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집단의 음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왔다. 하지만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음주 동기를 탐색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평소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eswell et al., 2015; Gonzalez & Skewes, 2013). 긴장 감소 이론에 따르면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는 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낮추기 위해 음주를 한다(권태연, 2011; Khantzian, 1997). 특히 우울은 문제 음주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되며, 선행 연구들은 음주를 우울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자기 처방(self-medication)으로 가정한다(권태연, 2011; Keough et al., 2015). Aneshensel과 Huba(1983)에 따르면 음주는 우울 수준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음주 행위는 오히려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인 알코올 사용은 알코올의 독성으로 인한 신체와 정신 건강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Kessler & Price, 1993). 또한, 알코올 섭취 효과가 사라진 후 다시 우울 증상이 나타날 때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권태연, 2011).

문제 음주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e.g., Christiansen et al., 2002; Gonzalez & Skewes, 2013)은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Keough 등(2015)은 우울이 혼술 집단의 문제 음주는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는 오히려 부적인 방향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Gonzalez와 Skewes(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 등의 부정 정서는 혼술과는 유의한 상

관을 보인 반면, 사회 음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Christiansen 등(2002)의 연구에서도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고했다. 더 나아가, 초기 성인기에 혼자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소비하는 알코올의 양은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Gonzalez, 2012; O'Hara et al., 2015). 이처럼 해외 문헌들은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문헌 중 대학생의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평소 경험하는 부정 정서의 정도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선행 연구들(e.g., Christiansen et al., 2002)은 혼술 집단에 병행 음주자를 포함한 한계가 있어, 순수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우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두 집단이 평소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동반 이환하는 정도가 높은 장애로 알려져 있다(Magee et al., 1996). Kushner 등(1990)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문제 음주의 선행 요인이며,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위협 자극에 의한 불안이 증가할 때 증가한 각성 수준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처방의 형태로 음주를 한다(Buckner et al., 2008). 사회불안으로 인한 각성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음주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계속 회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는 알코올 의존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kner et al., 2008).

문제 음주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에서는 음주 유형에 따라 평소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상이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krzynski & Creswell, 2020).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불편감(social discomfort)은 혼술 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Skrzynski & Creswell, 2020), 초기 성인기 혼술 빈도는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Buckner & Terlecki, 2016; Skrzynski et al., 2018),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Skrzynski et al., 2018) 및 사회적 유능감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Gonzalez & Skewes, 2013). 하지만 음주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편감의 차이에서도 선행 연구 간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별반 다르지 않으며(Gonzalez & Skewes, 2013), Tucker 등(200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대학생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과 비교할 때 또래와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 유형을 혼술 경험의 유무로 구분한 것에서 기인한 한계로 볼 수 있다. 혼술 집단에 사회 음주를 병행하는 음주자들이 포함되면서 두 집단의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불편감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병행 음주 집단을 제외한 순수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사회불안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측정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필요성

초기 부적응 도식을 소개한 Young(1994)의 도식 이론(schema theory)은 Beck(1967), Segal(1988)등의 자기 도식 이론(self-schema theory)을 확장한 것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개인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자기 개념(self-concept)의 중심을 이룬다(Schmidt & Joiner, 2004).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와 관련한 인지 도식의 심층적 구조이며, 심층적 수준의 인지 도식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1996; Markus, 1977). 따라서 자기 보고 형식으로 도식을 측정할 경우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 의도적인 보고가 가능한 도식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개인의 의식 수준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식 관련 정보처리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권석만, 1996; Schmidt & Joiner, 2004; Segal, 1988; Timbremont & Braet, 2004). 이에, 정보처리 과제(information processing tasks)를 사용하여 도식 처리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부호화 검사(Self-Referent Encoding Task: SRET)는 도식의 정보처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과제수행법으로, 자기 보고 형식으로 도식을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Derry & Kuiper, 1981). SRET는 컴퓨터 기반 실험 과제로 참여자는 컴퓨터 화면에 '자기'와 관련한 여러 개의 형용사를 제시받게 되며, 각 형용사가 '자신을 묘사하는지'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여 '그렇다(인정 반응)' 혹은 '아니다(부정 반응)'로 응답하게 된다. 자기 관련 판단 과제 이후 참여자는 예고에 없던 회상 과제(우연 회상 과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전 과제에서 제시되었던 형용사 중 기억나는 단어를 모두 작성하게 된다. SRET는 자기 도식 내용뿐만 아니라 심층적 도식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며(Taylor & Ingram, 1999), 자기와 관련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도식을 활성화한다(Derry & Kuiper, 1981).

SRET 수행이 산출하는 도식 관련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기 부호화 검사의 자기 관련 판단 결과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 도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참여자가 인정 반응을 한 형용사는 자기 도식 내용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기 부호화 검사에서 자기 관련 판단에 소요되는 반응 시간(reaction time)을 통해 자기 도식 관련 정보처리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자기 도식은 자기와 관련된 판단을 촉진하는 저장소(reservoir)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부호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Derry & Kuiper, 1981). 즉, 자기 도식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 중 도식과 일치된 정보의 처리를 촉진하게 된다(Dobson, 2010). SRET를 통해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자기' 관련 정보처리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우울 집단은 자기 관련 부정 형용사에 더 빠르게 반응한 반면, 비우울 집단은 자기 관련 긍정 형용사에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Derry & Kuiper, 1981; Goldstein et al., 2015; Kuiper & MacDonald, 1982). 자기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들은 그렇지 않은 정보들에 비해 더 접근이 쉽고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Strube et al., 1986), 참여자가 화면에 제시된 형용사에 빠른 반응 시간을 보인다는 것은 해당 형용사가 참여자의 자기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임을 시사하며,

관련된 자기 도식이 더 강하게 조직화 되어있음을 의미한다(Dainer-Best et al., 2018).

마지막으로 자기 부호화 검사 이후 시행하는 우연 회상 과제는 자기 관련 기억 편향(self-relevant memory biases)을 측정한다(Dainer-Best et al., 2018). 자기 관련 정보는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에 비해 접근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더 기억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Dobson & Shaw, 1987; Klein et al., 1989). 자기 도식은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강한 기억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이후 자기 도식과 일치하는 기억의 인출을 돕는다(윤여미, 1987; Mills, 1983). Derry와 Kuiper(1981)의 연구에서 우울 집단은 우울 혹은 비우울 관련 형용사에서 인정 혹은 부정 반응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연 회상 과제에서 우울 관련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는 등 회상 패턴에서의 편향이 나타났다. 즉, 개인이 가진 자기 도식과 외부의 정보가 일치할 때 회상의 정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새로운 정보들의 정교화와 기억(retention)은 정보와 상응하는 자기 도식 유무에 달려있다(Derry & Kuiper, 1981).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참여자들이 예고되지 않은 회상 과제에서 기억해 내는 형용사는 자기 관련 도식이 처리된 결과이며, 자기 도식과 일치하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다(Taylor & Ingram, 1999).

본 연구는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를 통해 초기 부적응 도식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초기 부적응 도식과 관련 없는 긍정적인 자기 관련 형용사 단어를 포함하여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자기 도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설문지 방식을 통해 측정한 초기 부적응 도식을 재검증함으로써 문제 음주 유형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련 판단은 개인의 자기 도식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식의 활성화가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대학 시기에 형성된 부적응적 음주 습관은 이후 심각한 문제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Wechsler et al., 2000).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증가하는 혼술은 이후 알코올 사용장애를 더 강하게 예측하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Degenhardt et al., 2015), 혼술 집단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내적 경험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 & Skewes, 2013). 반면, 대학생 사회 음주 집단은 또래의 음주 규범에 따르고 사회적 배제를 피하기 위해 폭음을 하며, 이는 문제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Borsari & Carey, 2001).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음주 동기와 평소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생 문제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및 특성을 비교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음주 유형을 구분한 기준에도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혼술과 사회 음주 집단을 혼술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혼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집단'과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혼술 집단에 사회 음주를 병행하는 음주자와 비위험 음주자가 포함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병행 음주 집단과 비위험 음주 집단을 별도의 음주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과 음주 동기, 우울, 사회불안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문제 음주의 취약성 요인으로 제기되었다(Riso et al., 2007).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문제 음주를 예측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종류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e.g., Pauwels et al., 2013; Roper et al., 2010),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와 관련된 초기 부적응 도식을 비교하였다.

또한, 음주 유형에 따라 대처 양식의 종류가 다르며, 특히 억제형 대처 양식은 혼술 집단의 문제 음주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oma et al., 2020). 사회 음주 집단은 다른 사람의 정서 반응을 왜곡하여 지각한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Townshend & Duka, 2003), 이들의 문제 음주는 반동형 대처 양식과 연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 음주의 근접 변인인 음주 동기와 심리적 부적응에서도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문제 음주의 관련 요인으로 보고된 우울과 사회불안의 정도가 음주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 et al., 2009; Keough et al., 2015). 그렇지만, 이 연구들에서도 순수한 혼술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국내 연구 중 각 문제 음주 유형과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요컨대, 음주 유형에 따라 음주 동기, 우울, 사회불안이 문제 음주와 관련된 양상이 다른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인지의 심층적 구조이며, 도식을 자기보고형 측정 도구로 알아볼 경우 의식적 수준의 도식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도식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권석만, 1996; Schmidt & Joiner, 2004; Segal, 1988; Timbremont & Braet, 2005). 선행 연구들은 개인이 가진 초기 부적응 도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도식에 의한 정보의 부호화, 기억, 인출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수행법을 제안하고 있다(Derry & Kuiper, 1981; Schmidt & Joiner, 2004). 본 연구에서는 도식의 자기 보고형 측정 방식에 더해 자기 부호화 검사를 통해 두 집단의 정보처리 과정을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음주 집단을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고 특히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처 양식, 평소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음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치료적 개입 및 장기적 위험 요인에 대한 심리교육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1. 문제음주자의 음주 유형별 심리적 특성 비교: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및 우울과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연구 1에서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심리적 취약성 및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음주 유형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에서 두 집단이 음주 동기에서 차이를 보이며(Borsari et al., 2001; Gonzalez et al., 2009; Gonzalez & Skewes, 2013; Halim et al., 2012), 음주 동기는 문제 음주의 근접 변인으로 보고되었다(Skryznski & Creswell, 2020). 그러나 혼술 집단에 사회 음주 병행 집단이 포함되었고, 각 음주 유형의 음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성 및 심리적 특징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된 실정이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심리적 취약성 요인은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처 양식이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졌으며, 음주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활성화로 인한 부정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가정된다(Ball & Young, 2000; Pauwels et al., 2013; Riso et al., 2007; Roper et al., 2010; Young et al., 2003).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문제 음주를 예측하는 도식의 종류는 혼재되어 나타났다(Pauwels et al., 2013; Roper et al., 2010). 특히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사회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신의 욕구, 감정 등을 잘 표현하지 않고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Goldsten et al., 2019; Skrzynski et al., 2018), 혼술 집단의 문제 음주는 대인관계 불편감 및 정서적 억제와 관련한 단절과 거절, 과잉 경계와 억제 도식 영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충동성이 혼술의 빈도를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Garofalo & Wright, 2017), 불충분한 자기 통제와 관련한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도 혼술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사회 음주 집단은 주로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로 음주를 하며, 음주를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대로 인식하고 사회 집단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sari & Carey, 2001). 또한, 사회 음주 집단은 타인의 기대와 압박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Neighbors et al., 2004),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는 타인의 욕구 및 반응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과 자신을 돌보는 것의 무력함, 타인과의 과도한 정서적 관여와 친밀감을 반영하는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도식 영역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혼술 집단은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단절과 거절 영역, 손상된 한계 영역, 과잉 경계와 억제 영역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 음주 집단은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영역, 타인 지향성 영역이 혼술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가설 1).

이에 더하여, 각 음주 유형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대처 양식의 정도와 종류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적응적 대처 양식으로 알려진 억제형 대처 양식이 문제 음주와 연관된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김주미 등, 2011; Carver & Scheier, 1994; Evans & Dunn, 1995), 음주 유형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억제형 대처 양식이 혼술 집단의 음주 빈도만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asking et al., 2011; Luoma et al., 2020). 또한, 사회 음주자들이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왜곡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Townshend & Duka, 2003),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정서 표출을 억제한다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Goldstein et al., 2019),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억제형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사회 음주 집단은 혼술 집단에 비해 반동형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가설 2).

또한, 각 음주 유형 집단이 음주 동기, 우울, 사회불안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음주 동기를 비교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지만(Christiansen et al., 2002; Gonzalez et al., 2009; Gonzalez & Skewes, 2013), 역시 혼술 집단

에 병행 음주 집단이 포함되었고, 더구나 국내 문헌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음주 동기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 음주 유형에 따라 평소 경험하는 우울 및 사회적 불편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Buckner & Terlecki, 2016; Christiansen et al., 2002; Gonzalez et al., 2009; Gonzalez & Skewes, 2013; Skrzynski & Creswell, 2020; Skrzynski et al., 2018), 문제 음주 유형에 따라 각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요컨대,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대처 동기가 높고, 사회 음주 집단은 사교 및 동조 동기가 혼술 집단보다 높을 것이며(가설 3),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우울과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가설 4).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을 문제음주자와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한 후, 문제음주자 집단을 혼술과 사회 음주의 평균 빈도(평균 월 2~3회 이상인 음주 유형)를 기준으로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및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집단이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우울 및 사회불안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혼술 집단은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단절과 거절 영역, 손상된 한계 영역, 과잉 경계와 억제 영역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 음주 집단은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영역, 타인 지향성 영역이 혼술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가설 2: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억제형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사회 음주 집단은 혼술 집단에 비해 반동형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3: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대처 동기가 높고, 사회 음주 집단은 사교 및 동조 동기가 혼술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4: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우울과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대학생 3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 전 불성실한 응답, 졸업생 등 대학생이 아닌 참여자 및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참여자 총 15명의 자료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315명으로, 이 중 남성은 109명(34.6%), 여성은 206명(65.3%)이었다. 평균 연령은 20.76세(*SD* = 2.23, 범위 18~29세)이었으며, 남성은 21.22세(*SD* = 2.51, 범위 18~29세), 여성은 20.42세(*SD* = 1.98, 범위 18~27세)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104/004-001).

음주 유형의 구분은 우선 한국형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AUDIT-K)에서 문제 음주의 절단점 8점을 기준으로 문제음주자와 비위험 음주 집단을 구분한 후, 음주 유형 구분 척도에서 혼술과 사회 음주의 연평균 빈도를 비교하여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음주 유형을 구분한 이혜규(2017)의 연구에서는 연평균 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음주 유형을 구분했지만, 이 경우 병행 음주 집단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 2~3회를 기준으로 음주 유형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 음주 평균 빈도는 월 1회 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혼술 평균 빈도는 월 2~3회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혼술 집단으로, 반대로 사회 음주 평균 빈도는 월 2~3회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혼술 평균 빈도는 월 1회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사회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혼술과 사회 음주 평균 빈도 모두 월 2~3회 이상으로 보고한 경우 병행 음주 집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집단을 선별하였다. 단,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월 2~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혼술 집단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회 음주 집단 혹은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선별 결과 혼술

집단은 총 24명, 사회 음주 집단은 140명, 병행 음주 집단 30명, 비위험 음주 집단 121명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한국형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문제 음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선별 검사(AUDIT)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경현(200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게 되며, 위험 음주(hazardous drinking)에 관한 3문항, 의존 음주(dependent drinking)에 관한 3문항 및 알코올로 야기된 문제를 반영한 유해 음주(harmful drinking)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문제음주자 분류 기준에 따라 AUDIT의 총점이 8점 이상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문제음주자로 구분하였다. AUDIT-K의 총점의 Cronbach's α는 .86으로, 위험 음주가 .84, 의존 음주가 .71, 유해 음주가 .73이었다(서경현, 2003).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Cronbach's α는 .82로, 위험 음주가 .79, 의존 음주가 .69, 유해 음주가 .67로 나타났다.

음주 유형 구분 척도. AUDIT-K로 선별한 문제음주자 집단을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및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이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 자신의 음주 습관을 묻는 단일 문항과 특정 음주 상황에 따른 평균 음주 빈도를 묻는 2문항, 그리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지난 1년간 의도치 않게 혼자 술을 마신 참여자가 혼술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혼술 경험을 묻는 단일 문항을 포함하였다. 평소 음주 습관을 묻는 첫 번째 문항은 4가지 항목(주로 혼자 술을 마시는 편이다, 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편이다, 혼자서도 술을 마시고 다

른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술을 마신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음주 유형별 음주 빈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음주 경험에 관한 문항은 '한 번도 마신 적 없음(1점)'에서 '주 4회 이상(6점)'의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음주 동기 척도(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DMQ). Cox와 Klinger(1988)의 음주 동기 모형에 Cooper(1995)의 동조 동기 문항을 추가하여 신행우(1998)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MQ는 4개 요인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각 음주 동기와 관련한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마신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된다. 본 척도는 고양, 대처, 동조, 사교의 음주 동기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음주 동기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이유로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DMQ의 Cronbach's α는 고양 동기가 .76, 대처 동기가 .89, 동조 동기가 .80, 사교 동기가 .85였으며(신행우, 1998), 본 연구에서는 고양 동기가 .80, 대처 동기가 .91, 동조 동기가 .79, 사교 동기가 .89로 나타났다.

도식 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 5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 영역과 각 영역의 하위 도식 15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Young(1994)이 개발하고 이미열(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5개 요인의 총 75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도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열(2006)의 연구에서 요인들의 Cronbach's α는 .63~.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식 전체의 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5개의 도식의 상위 영역인 5가지 도식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는 단절과 거절 영역 .96,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영역 .93, 타인 지향성 영역 .87, 과잉 경계와 억제 영역 .87, 손상된 한계

영역 .85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 양식 척도(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OC).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평소 사용하는 대처 양식을 측정하는 척도로, Heppner 등(1995)이 개발하고 이동귀와 박현주(2009)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척도는 '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PF-SOC의 Cronbach's α는 사려형 대처 .77, 억제형 대처 .76, 반동형 대처 .73이었으며(이동귀, 박현주, 2009), 본 연구에서는 사려형 대처 .75, 억제형 대처 .84, 반동형 대처 .73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 등(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증상과 관련한 인지, 정서, 신체적 증상을 묻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CES-D의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전겸구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orean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K-SIAS). 사회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인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것을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한국판 K-SIAS의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김향숙, 2001),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본 연구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차 분석에 앞서 선별된 혼술 집단이 30명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 분석에 필요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필요한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Levene의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 비모수 통계기법인 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은 Scheffé와 대비검정(contrast test)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각 음주 유형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정보에서 서로 동질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2).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성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3, 311) = 6.11$, $p < .001$. 이에, 각 변인에 대한 집단 차 분석에서 연령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음주 유형 집단 간 성비 비교(N = 315)

		혼술 (n = 24)	사회음주 (n = 140)	병행 음주 (n = 30)	비위험 (n = 121)	$\chi^2(p)$
성별	남	37.5%	40.7%	30.0%	28.1%	4.94
	여	62.5%	59.3%	70.0%	71.9%	

표 2. 음주 유형 집단 간 연령 비교(N = 315)

측정치	혼술	사회음주	병행 음주	비위험	F	Scheffé
연령	22.08(2.20)	20.22(2.09)	20.93(2.43)	20.92(2.14)	6.11^{***}	a > b

$^{***}p < .001$.

주요 변인 간 상관

각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문제 음주는 네 가지 음주 동기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고양 동기 $r(315) = .38$, $p < .001$; 대처 동기 $r(315) = .40$, $p < .001$; 동조 동기 $r(315) = .15$, $p = .008$; 사교 동기 $r(315) = .43$, $p < .001$.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처 양식의 관계에서 억제형 대처는 모든 도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절과 거절 $r(315) = .70$, $p < .001$;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r(315) = .73$, $p < .001$; 타인 지향성 $r(315) = .63$, $p < .001$; 과잉 경계와 억제 $r(315) = .51$, $p < .001$; 손상된 한계 $r(315) = .63$, $p < .001$. 또한, 반동형 대처도 모든 도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절과 거절 $r(315) = .64$, $p < .001$;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r(315) = .61$, $p < .001$; 타인 지향성 $r(315) = .58$, $p < .001$; 과잉 경계와 억제 $r(315) = .63$, $p < .001$; 손상된 한계 $r(315) = .60$, $p < .001$. 마지막으로 우울과 사회불안은 문제 음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우울 $r(315) = .06$, $p = .71$; 사회불안 $r(315) = -.05$, $p = .37$.

집단 간 문제 음주의 차이

음주 유형 집단 간 문제 음주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위한 정규성 가정은 만족하였으나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F(3, 311) = 26.482$, $p < .001$. 따라서 ranked ANCOVA의 방법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11) = 238.64$, $p < .001$. 즉,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은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문제 음주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문제 음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문제 음주,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우울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N = 315)

	문제음주	단절과 거절	손상된 자율성	타인 지향성	과잉경계 억제	손상된 한계	사려형	억제형	반동형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	우울	사회불안
문제음주	-														
단절과 거절	.04	-													
손상된 자율성	.03	.77	-												
타인 지향성	.07	.66	.74	-											
과잉경계 억제	.09	.65	.54	.62	-										
손상된 한계	.13	.64	.60	.50	.57	-									
사려형	.11	-.08	-.17	.03	.20	-.08	-								
억제형	.03	.70	.73	.63	.51	.63	-.18	-							
반동형	.11	.64	.61	.58	.63	.60	.03	.70	-						
고양동기	.38	.19	.10	.14	.17	.15	.22	.13	.08	-					
대처동기	.40	.25	.19	.22	.18	.20	.13	.19	.19	.56	-				
동조동기	.15	.27	.22	.32	.23	.26	.13	.17	.19	.15	.08	-			
사교동기	.43	.03	-.04	.10	.10	.09	.25	-.01	.08	.38	.19	.47	-		
우울	.06	.70	.66	.54	.52	.49	-.21	.66	.59	.14	.28	.08	-.03	-	
사회불안	-.05	.62	.64	.57	.52	.48	-.14	.60	.55	-.02	.06	.17	-.07	.56	-

주. pearson r 절댓값이 .15 이상인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집단 간 문제 음주 수준의 차이(N = 315)

	혼술 (n = 24)	사회음주 (n = 140)	병행 (n = 30)	비위험 (n = 121)	F	사후 검정	η^2
문제 음주	13.42(3.74)	13.44(5.14)	13.80(5.52)	4.64(1.74)	249.48***	a,b,c > d	.70

***p < .001.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

분석 전, 혼술 집단의 표본수가 30 이하임을 고려하여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등분산 가정에 대한 Levene의 검정에서 단절과 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에 대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단절과 거절 F(3, 311) = 4.88, p = .002;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F(3, 311) = 3.36, p = .019. 따라서, 두 도식 영역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은 비모수 검정인 ranked ANCOVA 검정을 사용하였다.

연령을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 및 ranked ANCOVA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5), 본 연구의 가설인 단절과 거절, 과잉 경계와 억제 및 손상된 한계 영역에서 혼술 집단의 점수는 사회 음주 집단과 비위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절과 거절 F(3, 311) = 9.39, p < .001; 과잉 경계와 억제 F(3, 311) = 4.23, p = .006; 손상된 한계 F(3, 311) = 5.32, p = .001. 사회 음주 집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및 타인 지향성 영역에서도 혼술 집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F(3, 311) = 8.35, p < .001; 타인 지향성 F(3, 311) = 3.45, p = .017.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N = 315)

	혼술 (n = 24)	사회음주 (n = 140)	병행 (n = 30)	비위험 (n = 121)	F	사후 검정	η^2
단절과 거절	75.50(23.47)	48.47(18.41)	62.00(27.45)	51.75(21.09)	9.39***	a > b,d	.08
손상된 자율성 수행	56.17(16.84)	38.23(14.39)	48.47(19.27)	40.43(15.26)	8.35***	a > b,d	.08
타인 지향성	28.00(8.40)	21.84(8.13)	24.43(8.78)	22.24(8.46)	3.45**	a > b,d	.03
과잉 경계와 억제	33.50(8.76)	26.61(9.05)	30.33(9.73)	26.72(9.28)	4.23**	a > b,d	.04
손상된 한계	28.54(7.38)	23.35(7.64)	28.77(10.44)	23.83(7.97)	5.32**	a,c > b c > d	.05

**p < .01. ***p < .001.

집단 간 대처 양식의 차이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 분석 결과(표 6), 사려형 대처 양식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3, 311) = 0.86, p = .46. 억제형 대처 양식의 경우,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과 비위험 음주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병행 음주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F(3, 311) = 7.88, p < .001. 사회 음주 집단의 주요한 대처 양식으로 가정한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도 혼술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과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F(3, 311) = 9.73, p < .001. 따라서 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6. 집단 간 대처 양식의 차이(N = 315)

	혼술 (n = 24)	사회음주 (n = 140)	병행 (n = 30)	비위험 (n = 121)	F	사후 검정	η^2
사려형	23.50(4.81)	24.71(4.22)	23.67(3.59)	24.19(5.14)	0.86		.01
억제형	17.67(4.57)	12.99(4.59)	16.47(5.75)	13.86(5.03)	7.88***	a > b,d c > b	.07
반동형	14.92(3.99)	12.11(3.73)	15.53(4.59)	12.29(3.46)	9.73***	a,c > b,d	.09

***p < .001.

집단 간 음주 동기의 차이

집단 간 음주 동기에 대해 연령 차이를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은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고양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F(3, 311) = 10.96$, $p < .001$. 혼술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과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대처 동기를 보였고, 사회 음주 집단도 비위험 음주 집단보다 높았다, $F(3, 311) = 24.98$ $p < .001$. 사교 동기의 경우 사회 음주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이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았다, $F(3, 311) = 19.07$, $p < .001$. 동조 동기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3, 311) = 1.21$, $p = .31$. 따라서 가설 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7. 집단 간 음주 동기의 차이(N = 315)

	혼술 (n = 24)	사회음주 (n = 140)	병행 (n = 30)	비위험 (n = 121)	F	사후 검정	η^2
고양 동기	11.79(3.71)	10.04(3.69)	11.53(3.25)	8.38(3.72)	10.96***	a,b,c > d	.10
동조 동기	11.25(3.63)	11.14(3.78)	11.13(3.29)	10.39(3.38)	1.21		.01
대처 동기	14.08(4.02)	9.94(4.22)	12.43(3.67)	7.61(3.82)	24.98***	a,c > b > d	.19
사교 동기	14.42(3.02)	15.82(2.85)	15.83(3.40)	13.16(3.30)	19.07***	b,c > d	.16

***p < .001.

집단 간 우울 및 사회불안의 차이

사회불안 점수의 등분산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사회불안의 집단 차이 검증은 ranked ANCOVA를 통해 실시하였다, F(3, 311) = 3.38, p = .02.

우울과 사회불안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표 8). 혼술 집단의 우울 점수는 사회 음주 집단과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았다, F(3, 311) = 6.71, p < .001. 사회불안 점수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았다, F(3, 311) = 5.53, p = .001. 이러한 결과는 가설 4를 지지한다.

표 8. 집단 간 우울과 사회불안의 차이(N = 315)

	혼술 (n = 24)	사회음주 (n = 140)	병행 (n = 30)	비위험 (n = 121)	F	사후 검정	η^2
우울	28.08(13.06)	16.45(10.60)	20.97(13.70)	17.97(11.30)	6.71***	a > b,d	.06
사회불안	46.67(12.75)	27.64(13.28)	33.13(17.01)	32.56(16.35)	5.53**	a > b,c,d	.10

**p < .01. ***p < .001.

논 의

연구 1에서는 참여자들을 문제음주자와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한 후, 문제음주자를 음주 유형에 따라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및 병행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우울 및 사회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우선, 집단 간 동질성 검정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에 비해 연령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krzynski & Creswell, 2020). 또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다르게(e.g., Gonzalez et al., 2009),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 사이의 문제 음주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음주 유형을 구분한 기준의 한계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Christiansen 등(2002)에서 대학생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은 음주 삽화마다 마시는 음주량은 비슷하지만, 혼술 집단의 음주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혼술 집단에 병행 음주 집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병행 음주 집단을 별도로 구분하여 혼술 집단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음주량, 음주 빈도 및 음주로 인한 문제들을 포괄한 개념인 문제 음주의 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집단 차 분석에서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단절과 거절, 과잉 경계와 억제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가설과 일치한다. 즉,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중요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곤란과 갈등,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유성진, 권석만, 2008), 자신의 정서, 욕구,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Goldstein 등(2019)에서 혼술 집단이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멀리하며 혼자 술을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정서에 대처하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혼술 집단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을 어려워하고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충동성이 혼술과 연관된다는 Garofalo와 Wright(2017)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가설과 달리,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및 타인 지향성 도식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음주 집단에서 동조 동기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타인 지향성 및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도식 영역은 사회 음주 집단의 동조 동기와 관련된 변인이다(Neighbors et al.,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 음주 집단의 동조 동기는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며, 사교 동기에서 사회 음주 집단이 혼술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보다 높았다. 다른 음주 동기와 비교해 사교 동기로 술을 마시는 이들은 음주 양상 및 심리적 특성에서 비교적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Kuntsche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 음주 집단은 심리적 특성에서 전반적으로 적응적인 양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처 양식 중 억제형 대처 양식은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이는 가설과 일치한다. 즉, 혼술 집단은 평소 자신의 부정적 내적 경험 및 스트레스 사건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가설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도식은 대처 양식에 영향을 주며(Pierce & Lydon, 1998), 부적응적 도식은 더 자기 패배적인 대처를 유발한다(김은정, 김진숙, 2010). 따라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대처 양식들에서 모두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결과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적응적 대처에 더욱 취약하도록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혼술을 하는 이들이 스스로 부정 정서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Gonzalez & Skewes, 2013). 대처 양식이란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반영한다(Wei et al., 2003). 자신의 대처 양식이 부적응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로부터 물러나는 경향을 보였다(Wei et al., 2003). 선행 연구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자신의 정서 경험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종합하여볼 때(Gonzalez & Skewes, 2013), 혼술 집단에서 반동형 대처 양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혼술 집단의 정서 조절 결함과 이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 음주 집단은 동조 동기가 아닌 사교 동기가 높았다. 사교 동기는 긍정 정서 경험과 연관된 변인이며(Creswell, 2021; Hamilton et al., 2020), Hasking 등(2011)에 따르면 사교 동기는 부적응적 정서 중심 대처와는 관련이 없다. 즉, 부정 정서 경험에 대처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 양식은 사회 음주 집단의 음주 양상과 연관된 변인이 아니며, 이들이 평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양식이 예상만큼 부적응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음주 동기의 집단 차 분석에서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대처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과 일치한다. 주로 대처 동기로 술을 마시는 이들은 음주가 자신의 부정 정서를 회피하도록 돕거나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Cooper et al., 1995). 주로 혼술을 하는 이들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음주가 자신의 부정 정서를 해소해 줄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으며(Gonzalez & Skewes, 2013), 자신의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대처 동기로 혼술을 택하는 음주 형태는 이후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Skrzynski & Creswell, 2020).

가설과 달리, 혼술 집단에 비해 사회 음주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동조 동기에서는 집단 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문헌의 대학생 표본과 국내 대학생 표본의 음주 동기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정지형과 장수미(2019)의 연구에서 대처 동기 및 사교

동기는 대학생 문제 음주와 연관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동조 동기는 다른 음주 동기에 비해 평균이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혜규(2017)의 연구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동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생의 음주 동기는 해외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e.g. Borsari & Carey, 2001). 즉, 본 연구에서 집단 간 동조 동기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도 동조 동기가 국내 대학생들의 음주와 연관된 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 사교 동기에서는 사회 음주 집단이 비위험 음주 집단과 비교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혜규(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요컨대, 사회 음주 집단의 동조 동기는 다른 음주 유형 집단과 차이가 없으며, 이들은 주로 대인관계를 촉진하고 감정적 공유를 위한 사교 동기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평소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만 하는 집단에 비해 평소 경험하는 부정 정서 및 우울의 정도가 더 높고 우울에 대한 자기 처방으로 혼술을 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eough et al., 2015; Skrzynski & Creswell, 2020). 또한 대학 시기에 우울에 대처하기 위한 혼술은 이후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Keough et al., 2015). 이와 더불어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보다 사회불안에서도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과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혼술 집단이 대인 상황에서 사회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스스로 대인관계로부터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reswell, 2021).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혼술 집단이 스스로 사회적 유능성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혼술 집단은 사회적 기술 자체에 결함이 있다기보다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을 의심하고 상호작용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스스로 혼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이혜규, 2017; Gonzalez & Skewes, 2013). 이와 달리, 사회 음주 집단의 음주는 사회성

정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사회 음주자들은 음주가 자신의 긍정 정서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eswell, 2021). 요컨대,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평소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우울과 사회불안에 대한 대처의 일종으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 1의 의의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집단 간 문제 음주 취약성 요인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탐색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음주자 집단 내에도 이질적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우울 및 사회불안에서 더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연구 1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를 임상적 알코올 사용장애 집단에 일반화하긴 어렵고, 혼술 집단의 표본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비해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했지만, 각 음주 유형 집단 내에 다른 음주 유형 빈도를 월 1회 이하로 경험한 참여자들도 포함한 한계가 있다. 혼술 집단 내에도 사회 음주를 월 1회 이하로 경험한 참여자, 혹은 사회 음주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 등 사회 음주 빈도에 따라서 하위 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혼술 집단의 수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추가적인 분석은 어려웠다. 후속 연구는 혼술 집단으로 충분한 표본을 모집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음주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혼술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및 음주 동기에서 가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재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혼술을 하는 사회 음주자가 혼술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포함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적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혼술 및 사회 음주 경험과 관련한 음주 의향, 음주 기대 등

의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집단을 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1은 대학생 문제 음주 집단 내에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음주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행과 재발에 기여하는 음주 유형으로 알려진 혼술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을 위한 개입의 초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도식 정보 처리와 음주 갈망의 변화: 자기 부호화 검사를 중심으로

연구 2에서는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자기 부호화 검사(Self-Referent Encoding Task: SRET) 및 우연 회상 과제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문제 음주와 연관된 인지 도식을 확인하고 도식의 활성화가 정서 및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각 음주 유형 집단과 연관된 초기 부적응 도식을 자기 보고형 측정 방법을 통해 알아본 결과, 혼술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도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도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기 역경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인지의 심층적인 구조이며 자기 보고형 측정 도구로 심층적 수준의 도식 처리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권석만, 1996; Schmidt & Joiner, 2004; Segal, 1988; Timbremont & Braet, 200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연구 1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측정 방법의 한계에 의해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와 연관된 도식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는 자기 보고형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 수행법으로(권석만, 1996), 심층적 도식의 내용뿐 아니라 도식의 정보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이다. 참여자가 자기 부호화 검사에서 인정하는 자기 관련 형용사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자기 도식(self-schema)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 관련 판단에 걸리는 반응 시간을 통해 자기 관련 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자기 도식의 종류와 조직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Derry & Kuiper, 1981; Strube et al., 1986). 또한, 자기 부호화 검사와 단기 기억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단순 순열 과제 수행 후 우연 회상 과제를 시행하여 자기 도식이 처리된 결과로써 기억에 저장된 도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Dainer-Best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SRET를 사용하여 혼술 집단이 단절과 거절, 손상된 한계 및 과잉 경계와 억제 영역 관련 형용사에 대한 자기 관련성 판단에서 처리 편향을 보이고, 사회 음주 집단은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타인 지향성 영역 관련 형용사에서 처리 편향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가설 1).

추가적으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은 초기 부적응 도식과 관련한 자기 형용사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기와 관련한 형용사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동일한 과제를 사용하여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자기 관련 정보처리 과정을 탐색한 Taylor와 Ingram(1999)의 연구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은 부정적 자기 형용사에 대한 인정 반응 빈도는 비슷했지만, 긍정적 자기 형용사를 인정하는 경향성은 비우울 집단이 우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구 1에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평소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혼술 집단이 모든 도식에서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이 긍정적 자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 부호화 검사는 자기 도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Derry & Kuiper, 1981), 실험 과제를 통해 활성화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정서 변화와 음주 갈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도식 치료 이론에 따르면 초기 부적응 도식의 활성화는 부정 정서와 자기 패배적 행동, 부적응적인 대처 기술을 유발하며(Janson et al., 2019), Riso 등(2007)은 물질사용장애가 도식 활성화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를 통해 활성화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실험 과제 전후의 정서 변화와 음주 갈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은 각각 관련 도식 형용사에서 처리 편향의 정도가 클수록 과제 후 부정 정서와 음주 갈망이 상승할 것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가설 2).

연구 2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혼술 집단은 단절과 거절, 손상된 한계, 과잉 경계와 억제 영역 관련 형용사에 대한 자기 관련성 판단에서 처리 편향을 보일 것이며, 사회 음주 집단은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타인 지향성 영역 관련 형용사에서 처리 편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은 각각 관련 도식 형용사에서 처리 편향의 정도가 클수록 과제 후 부정 정서와 음주 갈망이 상승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대학생 총 268명을 대상으로 스크리닝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스크리닝에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며 혼술 집단 혹은 사회 음주 집단으로 구분되는 참여자에게만 실험 참여를 안내하였다. 총 6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19명은 혼술 집단, 48명은 사회 음주 집단에 해당하였다. 이중 남성은 24명, 여성은 43명이었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22.87세(*SD* = 2.94, 범위 18~31세)였으며, 남성은 23.67세(*SD* = 3.21, 범위 18~30세) , 여성은 22.42세(*SD* = 2.71, 범위 19~31세)였다.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한 명의 참여자 데이터가 누락되어, 총 66명의 참여자에 대한 실험 측정치를 분석하였다(남성 24명, 여성 42명).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107/004-023).

측정도구

한국형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 유형 구분 척도.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의 측정을 위해 Watson 등(198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현희 등(2003)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해당하는 총 20개의 형용사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험하는 상태적 정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정서 수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지시문을 변형하였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84, 부정 정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전 측정치의 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87, 부정 정서 .91, 사후 측정치의 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87, 부정 정서 .91로 나타났다.

음주 갈망 척도.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 전후의 음주 갈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이다. 총 2문항으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술을 마시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과 '오늘 술을 마시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다. 음주 갈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며, 술을 마시고 싶은 상황을 묻는 문항은 혼술 혹은 사회 음주 상황 중 한 가지를 고르도록 안내하였다.

절차

연구 2는 스크리닝 사전 설문과 본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스크리닝 사전 설문에는 문제 음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음주 유형 구분을 위한 척도가 포함되었다. 스크리닝을 통한 실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참여 시스템(R-point)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구명과 연구 내용을 공지하였고, 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스크리닝 설문 결과를 확인하여 혼술 집단 혹

은 사회 음주 집단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 한해 실험 참여를 메일로 안내하였다. 연구 1에서 후속 연구 안내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는 별도의 스크리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후속 연구 참여에 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참여를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은 심리학과 연구참여시스템 혹은 Doodle (http://doodle.com/)을 통해 실험 약속을 잡았다. 실험에 참가할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연구에 참여하거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http://zoom.us.)을 통해서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오프라인 연구에는 2명이 참여했으며, 결과값에서 온라인 연구 참여자들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켰다.

예정된 시간에 실험실을 방문하거나 Zoom 회의 링크에 접속하면 참여자들에게 실험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연구에 대한 안내를 한 뒤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이후 우울, 긍정 및 부정 정서 상태, 음주 갈망을 측정하는 사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 작성 후 참여자는 '자기 부호화 검사', '단순 순열 과제', '우연 회상 검사'로 이어지는 온라인 실험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약 17분 정도 소요되었다. 온라인 실험 과제 후 긍정 및 부정 정서 상태와 음주 갈망을 측정하는 사후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는 약 3분 정도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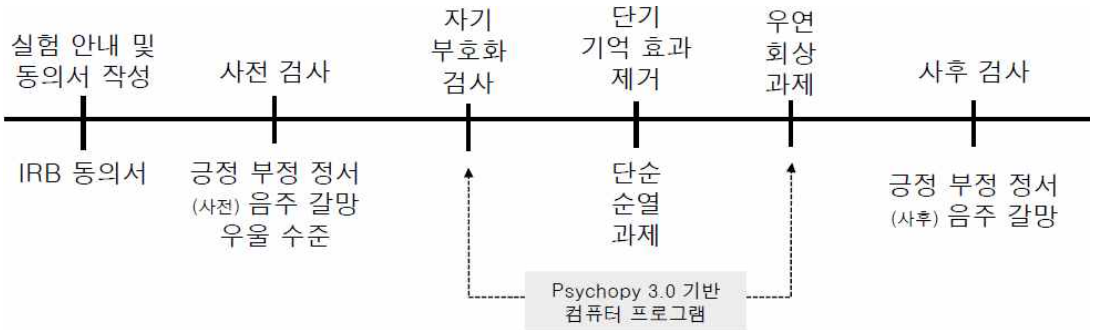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2의 실험 과제 절차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의 구성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는 'Psychopy 3.0'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컴퓨터 과제로, 본 시행에 앞서 과제에 대한 설명과 연습 시행을 포함한다. 오프라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실험 과제에 대한 설명과 연습 시행, 본 시행 모두 실험실 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연구 참여자는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키보드 사용이 가능한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을 사용하여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할 것과 인터넷 접속 환경을 원활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Zoom 상의 채팅창에 실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낸 뒤 연구자가 안내한 URL에 접속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자기 부호화 검사에서 참여자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관련한 형용사 25개와 긍정적인 자기 도식을 반영하는 긍정 형용사 25개를 연속해서 무선적으로 제시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각 형용사가 '자신을 묘사하는지'의 여부를 '그렇다(키보드 ′d′ 입력)' 혹은 '그렇지 않다(키보드 ′k′ 입력)'로 빠르게 판단하여 답하게 된다. 본 시행 전 연습 시행을 통해 참여자들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는 연습 시행 단어(4개), 초두 효과 제거를 위한 단어(4개), 본 시행 단어(50개)를 포함하여 총 58개의 형용사 단어가 제시되었다. 과제에서 사용되는 초기 부적응 도식 관련 형용사는 연구 1에서 사용한 YSQ-S(이미열, 2006) 척도와 Young 등(2003)의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설명 중 자기(self)를 기술한다고 여겨지는 형용사를 선정하여 형용사 단어풀을 만들었다. '긍정 형용사'는 동일한 절차를 사용한 권석만(1996)의 연구와 윤여미(198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단어풀에 포함된 형용사 중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국립국어원, 2005)'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많거나 적은 형용사를 제외하여 평정지를 제작하였고, 임상심리전문가 2명의 평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제에 포함할 단어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도식 영역별 5개씩, 총 25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연습 시행 단어 및 초두 효과 제거를 위한 단어는 긍정 형용사와 도식 관련 형용사에서

각 2개씩 선정하였으며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과제에 포함된 단어는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자기 부호화 검사에서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모든 형용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마친 후, 단기 기억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간단한 순열 과제 4문항에 답하게 된다(예, 1 5 9 13 17 __,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열 과제 후 예고에 없던 회상 과제를 실시하여 참여자는 5분간 자기 부호화 검사에서 보았던 형용사를 회상하여 최대한 많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SPSS 26.0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발된 두 집단이 각 형용사에 대한 인정 및 부정 반응 수, 반응 시간 및 회상량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긍정 및 부정 정서의 변화, 음주 갈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 및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처리 편향의 정도에 따라 부정 정서 및 음주 갈망 변화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단 간 동질성 분석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동질성 분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9, 10).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성별과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두 집단의 사전 우울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인정 반응과 부정 반응의 차이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긍정 형용사와 도식 관련 형용사에 대한 인정 반응('그렇다')과 부정 반응('그렇지 않다') 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Shapiro-Wilk 검정에서 혼술 집단의 타인 지향성,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형용사 및 긍정 형용사에 대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9. 음주 유형 집단 간 성비 비교(N = 67)

		혼술(n = 19)	사회음주(n = 48)	$\chi^2(p)$
성별	남	36.8%	35.4%	0.01
	여	63.2%	64.6%	

표 10. 음주 유형 집단 간 연령 및 우울 수준 비교(N = 67)

측정치	혼술(n = 19)	사회음주(n = 48)	t
연령	24.05(3.31)	22.40(2.67)	1.95
우울	20.42(12.02)	18.38(8.96)	0.76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을 제외한 다른 도식 형용사에서 두 집단의 인정 반응과 부정 반응 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 형용사에서 사회 음주 집단이 혼술 집단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4) = 2.42$, $p = .02$, Cohen's $d = 0.63$. 또한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 형용사에 대한 부정 반응에서도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t(64) = 2.42$, $p = .04$, Cohen's $d = 0.63$.

표 11. 집단 간 인정 반응과 부정 반응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N = 66)

측정치	반응	혼술(n = 18)	사회음주(n = 48)	t
단절과 거절	인정	2.33(1.57)	3.21(1.20)	2.42*
	부정	2.67(1.57)	1.79(1.20)	2.42*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인정	2.11(1.57)	1.92(1.50)	0.65
	부정	2.89(1.56)	3.08(1.50)	0.47
과잉 경계와 억제	인정	1.83(1.25)	2.22(1.32)	0.33
	부정	3.17(1.24)	2.81(1.31)	0.99

*$p < .05$.

-Mann-Whitney 검정 결과

측정치		집단	평균 순위	순위합	Z
타인 지향성	인정	혼술(n = 18)	33.22	598.00	-0.08
		사회음주(n = 48)	33.60	1613.00	
	부정	혼술(n = 18)	33.78	608.00	-0.07
		사회음주(n = 48)	33.40	1603.00	
손상된 한계	인정	혼술(n = 18)	30.29	545.00	-0.86
		사회음주(n = 48)	34.71	1666.00	
	부정	혼술(n = 18)	36.72	676.00	-0.85
		사회음주(n = 48)	32.29	1550.00	
긍정 형용사	인정	혼술(n = 18)	32.33	582.00	-0.31
		사회음주(n = 48)	33.94	1629.00	
	부정	혼술(n = 18)	34.67	624.00	-0.31
		사회음주(n = 48)	33.06	1587.00	

집단 간 반응 속도 차이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각 형용사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과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반응 속도와 인정 반응 속도의 집단차 분석 전 극단치를 확인하여 3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인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합산한 전체 반응 속도의 집단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이후 인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 반응 속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인정 반응의 경우(표 13),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형용사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인정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절과 거절 $t(61) = 2.10$, $p = .04$, Cohen's $d = 0.60$; 손상된 한계 $Z = -2.02$, $p = .04$. 부정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집단 간 반응 속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N = 63$)

측정치	혼술($n = 17$)	사회음주($n = 46$)	t
단절과 거절	6360.35(2191.07)	6580.22(2455.89)	0.32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6092.45(1905.45)	6719.29(2168.74)	1.05
긍정 형용사	9476.92(3999.79)	9983.16(3440.38)	0.50

주. 단위 msec

-Mann-Whitney 검정 결과

측정치	집단	평균 순위	순위합	Z
타인 지향성	혼술($n = 17$)	31.53	536.00	0.90
	사회음주($n = 46$)	32.17	1480.00	
과잉 경계와 억제	혼술($n = 17$)	30.00	510.00	0.60
	사회음주($n = 46$)	32.74	1506.00	
손상된 한계	혼술($n = 17$)	28.12	478.00	0.31
	사회음주($n = 46$)	33.43	1538.00	

표 13. 집단 간 인정 반응 속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 (N = 63)

측정치	혼술(n = 16)	사회음주(n = 47)	t
단절과 거절	2639.85(2346.77)	4023.52(2247.43)	2.10*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1983.65(1339.83)	2740.09(2261.54)	1.26
타인 지향성	3117.53(1533.09)	3507.54(2203.90)	0.65
과잉 경계와 억제	2078.16(1323.30)	2834.98(2383.48)	1.20
긍정 형용사	5007.56(2524.95)	6205.69(3408.15)	1.29

주. 단위 msec
*p < .05.

Mann-Whitney 검정 결과

측정치	집단	평균 순위	순위합	Z
손상된 한계	혼술(n = 16)	24.00	384.00	-2.02*
	사회음주(n = 47)	34.72	1632.00	

*p < .05.

집단 간 회상량 차이

두 집단의 회상 형용사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독립표본 t-검정과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도식 형용사에 대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회상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4). 각 도식 형용사 회상 수를 회상된 전체 형용사 수로 나눈 값인 회상 비율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집단 간 형용사 회상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및 Mann-Whitney 검정 결과 (N = 66)

측정치	집단	평균 순위	순위합	Z
단절과 거절	혼술(n = 18)	34.42	619.50	-0.25
	사회음주(n = 48)	33.16	1591.50	
손상된 수행과 자율성	혼술(n = 18)	33.11	596.00	-0.11
	사회음주(n = 48)	33.65	1615.00	
타인 지향성	혼술(n = 18)	28.94	521.00	-1.23
	사회음주(n = 48)	35.21	1690.00	
과잉 경계와 억제	혼술(n = 18)	32.61	587.00	-0.24
	사회음주(n = 48)	33.83	1624.00	
손상된 한계	혼술(n = 18)	27.58	496.50	-1.58
	사회음주(n = 48)	35.72	1714.50	

Mann-Whitney 검정 결과

측정치	혼술(n = 18)	사회음주(n = 48)	t
긍정 형용사	7.61(5.18)	8.23(2.82)	0.62

실험 전후 긍정, 부정 정서의 변화

과제 전후 집단별 정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과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긍정 정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술 집단 $t(18) = 0.55$, $p = .59$, 사회 음주 집단 $t(47) = 1.45$, $p = .16$. 두 집단의 부정 정서의 변화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표 15), 혼술 집단에서는 사전 사후 부정 정서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0.45$, $p = .65$. 사회 음주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양의 순위(Sum rank = 18.35)보다 음의 순위(Sum rank = 20.57)가 더 높게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부정 정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2.89$, $p = .01$. 두 집단 간 실험 전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량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집단 간 정서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16).

표 15. 집단별 실험 전후 부정 정서 변화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N = 67)

집단	시기	평균 순위	순위합	Z
혼술 집단	음의 순위	9.56	86.00	-0.45
	양의 순위	8.38	67.00	
사회 음주 집단	음의 순위	20.57	596.50	-2.89**
	양의 순위	18.35	183.50	

**p < .01.

표 16. 집단 간 긍정 및 부정 정서 변화량의 차이(N = 67)

측정치	혼술(n = 19)	사회음주(n = 48)	t
긍정 정서 차이	0.37(2.91)	1.02(4.89)	0.67
부정 정서 차이	-0.58(5.27)	-2.02(4.57)	1.11

실험 전후 음주 갈망의 변화

과제 전후 음주 갈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7). 전반적으로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음주 갈망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2.65, p = .01. 혼술 집단의 경우 실험 후 음주 갈망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Z = -1.98, p = .05. 사회 음주 집단은 실험 후 음주 갈망의 정도가 낮아졌지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 = -1.84, p = .06. Mann-Whitney 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사전 사후 음주 갈망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Z = -0.76, p = .45. 마지막으로, 실험 후 음주 의향에 대한 집단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18), 혼술 집단은 실험 후 혼술을, 사회 음주 집단은 사회 음주를 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집단에 따른 음주 의향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집단별 실험 전후 음주 갈망 변화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N = 67)

집단	시기	평균 순위	순위합	Z
전체	음의 순위	14.53	276.00	-2.65^{**}
	양의 순위	10.71	75.00	
혼술 집단	음의 순위	4.25	25.50	-1.98^{*}
	양의 순위	2.50	2.50	
사회 음주 집단	음의 순위	10.69	139.00	-1.84
	양의 순위	8.50	51.00	

$^{*}p < .05$. $^{**}p < .01$.

표 18. 집단 간 실험 후 음주 의향의 차이 비교(N = 67)

		혼술 집단(n = 19)	사회음주집단(n = 48)	$\chi^2(p)$
음주 의향	혼술	53.8%	12.2%	13.59^{***}
	사회 음주	46.2%	87.7%	

$^{***}p < .001$.

처리 편향에 따른 부정 정서 및 음주 갈망의 변화

각 형용사 단어에서의 처리 편향 정도에 따라 부정 정서와 음주 갈망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처리 편향 측정치와 부정 정서 변화량, 음주 갈망 변화량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Dainer-Best 등(2018)과 Goldstein 등(2015)의 SRET를 활용한 연구에서 처리 편향의 정도를 전체 인정 반응 빈도 대비 각 형용사에 대한 인정 반응 빈도 ($\frac{nvmber\,of\,EMS\,word\,endorsed}{nvmber\,of\,any\,word\,endorsed}$)로 계산한 것을 참고하여 처리 편향의 정도를 계산하였다(표 19). 그 결과, 전체 참여자의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도식 영역 형용사의 처리 편향 정도와 음주 갈망 변화량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66) = .26$, $p = .03$. 혼술과 사회 음주 집단을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 처리 편향의 정도는 정서 및 음주 갈망 변화량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19. 처리 편향 정도, 정서 변화량 및 음주 갈망 변화량 간의 상관(N = 66)

	단절거절 bias	손상수행 bias	타인지향 bias	과잉경계 bias	손상한계 bias	긍정 bias	긍정정서 변화량	부정정서 변화량	음주갈망 변화량
단절거절 bias	-								
손상수행 bias	-.20	-							
타인지향 bias	-.25	.17	-						
과잉경계 bias	.05	.22	-.35	-					
손상한계 bias	-.09	.56	.01	.16	-				
긍정 bias	-.25	-.30	.01	-.43	.00	-			
긍정정서 변화량	.05	-.15	.10	-.07	.07	.07	-		
부정정서 변화량	.02	.03	-.09	-.06	-.11	.00	-.11	-	
음주갈망 변화량	.01	.26	-.11	-.04	.23	-.12	-.16	.23	-

주. pearson r 절댓값이 .25 이상인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논 의

연구 2에서는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를 통해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 관련 형용사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도식의 활성화가 정서 변화 및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우선, 사회 음주 집단이 혼술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영역 형용사에서 더 높은 인정 반응을 보여,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Connolly 등(2016)은 SRET의 산출 지표 중 인정 반응 빈도는 자기 도식으로 인한 정보처리 편향을 알아보는 변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도식 관련 형용사는 각 5개씩으로, 두 집단의 인정 반응 평균 개수를 고려하면 이는 근소한 차이로 볼 수 있다.

Connolly 등(2016)은 자기 도식으로 인한 정보처리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SRET 지표 중 반응 속도와 회상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형용사에서 인정 반응의 속도가 더 빨라,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SRET 과제에서 빠른 반응 속도는 도식으로 인한 처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며, 해당 형용사 단어와 관련한 인지 구조가 더 강하게 조직화 되어있어 자동적인 정보처리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Dainer-Best et al., 2018; Derry & Kuiper, 1981; Dobson & Shaw, 1987). 즉,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스스로에 대한 가치 절하, 대인관계 소외, 충동성 및 자기중심적 성향과 관련한 인지 도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이 회상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도식으로 인한 처리 편향과 관련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두 집단이 회상량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도식 관련 형용사 개수의 한계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SRET를 사용한 Derry와 Kuiper(1981)는 부정 형용사와 긍정 형용사를 각각 30개씩 과제에 포함

시켰으며, Connolly 등(2016)의 연구에서는 형용사별로 22개의 단어를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 도식 관련 형용사에 포함된 단어는 각각 5개에 그쳐, 실험 과제 중 도식 관련 정보가 부호화되고 도식을 활성화시키기에 단어 수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 편향은 정보의 부호화 과정의 영향을 받으며 도식으로 인한 부호화 과정은 회상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의 가정을 토대로 할 때(Derry & Kuiper, 1981; LeMoult & Gotlib, 2019), 본 연구에서는 부호화 과정에 한계가 있어 회상량에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SRET를 사용한 일부 선행 연구들과 달리, 과제 전 기분 유도 절차를 사용하지 않은 한계일 가능성이 있다. Taylor와 Ingram(1999)의 연구에서 과제 전 부정 정서를 유도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간 긍정 형용사 인정 반응 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를 유도한 조건에서는 두 집단이 인정 반응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SRET를 사용한 일부 선행 연구는 회상량의 바닥 효과(floor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호화 검사 전에 회상 과제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e.g., Timbremont & Braet, 2005). 이렇듯, SRET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처리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다양한 실험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도 방법론적인 한계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도식별로 더 많은 형용사 단어를 충분히 노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실험 전 정서를 유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도식의 활성화 여부를 점검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회상 과제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집단을 포함하여 회상을 예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회상량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 음주 집단의 경우,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부정 정서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혼술 집단의 음주 갈망은 실험 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반대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부호화 검사 중 도식 활성화보다는 주의 분산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Timbremont와 Braet(2005)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기 부호화 검사 결과는 실험 후 단어 회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기 부호화 검사에서 '자기'에 대한 평정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평정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SRET 과제 중 참여자들의 주의가 분산되어 실험 후 측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가정한다(Timbremont & Braet, 2005). 또한, 부정 정서에 대한 주의 분산은 반추와 같은 내재화된 사고(inward thinking)를 방지하는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Nolen-Hoeksema, 1991), 선보람과 이훈진(2021)의 연구에서도 주의 전환 처치를 시행하였을 때 음식 갈망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SRET 과제 중 참여자들의 주의가 분산되었고, 주의 분산 효과로 인해 참여자들의 부정 정서와 음주 갈망 정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명을 제외한 참여자가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과제를 진행함에 따라 실험 환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과제 중 참여자들의 주의가 전환되어 오히려 부정 정서를 환기시키고 음주 갈망의 정도가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초기 부적응 도식과 음주 갈망 사이에 다른 매개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Simons 등(2018)의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문제 음주 사이에서 고통 감내력이 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대처 양식을 매개하여 부적응을 야기하며(Young et al., 2003), Hasking 등(2011)의 연구에서 대처 양식은 음주의 근접 변인인 음주 동기를 거쳐서 문제 음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가정한다. 이렇듯 초기 부적응 도식은 문제 음주의 근원 변인(distal factor)으로 도식의 활성화와 음주 갈망 사이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들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과제를 통한 도식의 활성화가 음주 갈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를 사용하여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확인하고, 도식의 활성화가 정

서 변화 및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혼술 집단과 연관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상량, 부정 정서 및 음주 갈망의 변화에 있어 가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두 집단의 도식 관련 정보처리 편향에 관한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결과는 SRET 실험 절차가 가진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어 수, 정서 유발 조건 등 다른 실험 처치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매개 변인들을 실험 과제에 포함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험 과제법을 사용해 심층적 수준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SRET를 활용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는 연구들에서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 합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음주 집단을 혼술 집단, 사회 음주 집단, 병행 음주 집단 및 비위험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음주 동기 및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를 통해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도식 관련 정보처리 편향을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실험 과제를 통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활성화가 정서 변화 및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등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부적응적 대처 양식에 속하는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에서도 혼술 집단의 점수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주 동기에서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대처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음주 집단이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사교 동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동조 동기에서는 집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사회불안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자기 부호화 검사 및 우연 회상 과제를 사용하여 두 집단의 도식 관련 정보처리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형용사에서 인정 반응의 속도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더 빨라 가설이 지지되었다. 다만,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 형용사의 인정 반응 수는 사회 음주 집단이 더 많았다. 자기 부호화 검사 후 형용사 회상량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 음주 집단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부정 정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술 집단은 실험 후 음주 갈망의 정도가 실험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도식 형용사의 인정 반응 빈도 비율에 대한 처리 편향의 정도가 높을수

록 음주 갈망의 변화량도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 도식 정보처리 편향이 클수록 음주 갈망의 증가로 이어졌다.

연구 1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 및 부적응적 대처 양식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모든 도식 수준에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조절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 음주보다 혼술을 택한다는 연구 결과(Bilevicius et al., 2020)와 유사하다. 이와 더불어, 혼술 집단에서 억제형 대처 양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알코올이 자기 관련 정보(self-relevant information)에 대한 반응 수준을 낮추어 부정적 자기 도식을 회피하도록 한다는 Hull(1981)의 이론과, 음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자기 파괴적 행위라고 가정한 Kayla와 Jennifer(2016)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혼술은 부정적 자기 신념을 반영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도식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회피하는 방법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 인식(self-awareness) 수준을 낮추기 위한 음주는 문제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Hull, 1981). 또한, 선행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 도식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Corte & Zucker, 2008), 혼술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억제형 대처 양식은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및 재발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우울 및 사회불안에서도 더 높게 나타나, 가설과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평소 사회적 불편감과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Gonzalez et al., 2009; Skrzynski & Creswell, 2020),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Skrzynski & Creswell, 2020)와도 일치한다. 또한,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과잉 경계와 억제 도식 영역 등 중요한 타인과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도식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혜규(2017)의 주장처럼 혼술 집단의 사회적 불편감은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으로부터 기인하기보다, 정서 표현 억제 및 사

회적 고립과 관련한 신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충동 억제의 어려움을 보이고 우울 및 사회불안 등 부정 정서를 회피하려는 대처 전략으로 혼자 술을 마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혼술 및 사회 음주 집단은 문제 음주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및 타인 지향성 도식 영역, 그리고 반동형 대처 양식에서 사회 음주 집단이 혼술 집단보다 낮아 사회 음주 집단은 심리적 취약성 요인들에서 비교적 적응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이 동조 동기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 음주 집단에서 사교 동기가 높게 나타난 점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정지형과 장수미(2019)의 연구에서 사교 동기는 대학생 문제 음주와 연관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Kuntsche 등(2005)에서는 사교 동기로 음주를 하는 이들은 심리적 특성에서 비교적 적응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Christiansen 등(2002)에서 사회 음주 집단은 정서 대처 및 우울 증상에서 비위험 집단과 비슷하게 적응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즉, 사교 동기로 술을 마시는 대학생 사회 음주 집단은 혼술 집단과 비교했을 때 문제 음주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정서 및 대인관계 특성 등에서는 비교적 적응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있거나, 혹은 선행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 사회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Creswell(2021)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음주 기대 및 사회적 보상에 대한 민감성 등이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를 특징적으로 예측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경험 표집법을 사용한 Hamilton 등(2020)의 연구에서는 일과 중 긍정 경험이 대학생들의 사회 음주 빈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변인들이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고 경험 표집법과 같이 문제 음주와 연관된 변인을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 혼술 집단은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형용사에 대해 더 빠른 인정 반응 속도를 보였고, 사회 음주 집단은 단절과 거절 도식 영역 형용사에 대한 더 높은 인정 반응 빈도를 보여, 인정 반응 속도와 인정 반응 빈도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Connolly 등(2016)에 따르면 인정 반응 빈도는 도식으로 인한 정보처리 편향을 알아보기에 적합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용사는 도식별 5개씩으로 집단 간 인정 반응의 평균 개수 차이는 매우 근소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용사 개수의 한계로 인해 도식 관련 정보가 충분히 부호화되기 어려워 회상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빠른 인정 반응 속도는 도식으로 인해 자동적인 정보처리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며(Dainer-Best et al., 2018), Connolly 등(2016)은 반응 속도가 정보처리 편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집단 간 인정 반응 속도 차이에 관한 결과를 통해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과 관련한 자기 신념이 혼술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혼술 집단은 부정적 자기 평가, 사회적 소외 및 충동적 성향과 관련한 자기 신념을 가지며, 이러한 도식은 혼술 집단의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험 후 사회 음주 집단의 부정 정서가 감소하고 혼술 집단의 음주 갈망이 감소하여,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자기 부호화 검사가 도식을 활성화하기보다 주의를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식 영역당 5개의 형용사만을 사용하여 도식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어려웠을 수 있고, 참여자 대부분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면서 실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부정 정서를 환기시키고 음주 갈망의 정도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실험 전 정서를 유발하거나 회상 과제의 여부를 미리 알려준 선행 연구들(Taylor & Ingram, 1999; Timbremont & Braet, 2005)과의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Taylor와 Ingram(1999)의 연구에서는 SRET 수행 전 부정 정서를 점화한 조건

과 정서를 점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우울 및 비우울 집단의 과제 수행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정 정서 점화 조건에서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긍정 형용사의 인정 반응 빈도가 더 낮았지만, 정서를 점화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긍정 형용사에 대한 인정 반응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ylor & Ingram, 1999). 또한, 회상 과제에 대해 미리 알려준 Timbremont와 Braet(2005)의 연구에서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긍정 형용사의 회상량은 낮았지만, 부정 형용사의 회상량은 더 높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작점검을 통해 도식 활성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들 내에서도 음주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 대학 시기에 나타난 혼술은 이후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요인이자 재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Christiansen et al., 2002; Degenhardt et al., 2015), 본 연구 결과는 혼술과 관련하여 알코올 사용장애로의 진행 및 재발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혼술 집단의 문제 음주는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양식 등 음주와 관련한 근원 변인들과 관련되며,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는 음주 동기와 같은 근접 변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연구 1,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주로 혼술을 하는 이들은 정서적 교류가 오가는 대인관계를 불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의 정서 및 욕구 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혼술 집단은 대처 양식에서도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고, 음주 동기 중 대처 동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기 및 타인과 관련한 인지 도식과 도식을 활성화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음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회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문제 음주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Riso et al., 2007), 회피적 대처의 일종으로 음주를 하는 대신 다른 적응적 대처 방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혼술이 문제 음주로 발전하는 과정을 방지할 수 있다(Christiansen et al.,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시기에 혼술을 하는 이들이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 사건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심리교육 및 치료적 개입에 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 결과(e.g., Borsari et al., 2001)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대학생 사회 음주 집단은 비교적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hristiansen 등(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 사회 음주 집단이 비위험 음주 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음주 집단은 사교 동기에서 비위험 음주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Kuntsche 등(2005)은 고양 동기는 과음, 대처 동기는 음주 관련 문제와 관련된 반면에, 사교 동기는 적절한 음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 정서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및 혼술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생의 사회 음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 음주는 긍정 정서 경험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Gonzalez et al., 2009).

세 번째로,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음주 유형 집단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 음주 정도에 대한 집단 차 검정에서 혼술 집단과 사회 음주 집단의 문제 음주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보다 음주 관련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과음 빈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불일치한다(e.g., Gonzalez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혼술 집단에 병행 음주 집단을 포함한 한계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술 집단과 병행 음주 집단을 구분함에 따라 집단 간 문제 음주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음주 유형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자기 보고형 척도가 아닌 실험 과제법을 통해서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RET는 선행 연구들에서 Beck(1967)의 인지 도식 이론을 바탕으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인지 도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됐으며, 이들 과제에 포함된 형용사 단어는

‘자기’에 관한 부정 형용사 및 긍정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e.g., 권석만, 1996; Timbremont & Braet, 2004). 선행 연구들은 Young(1994)의 심리도식 이론에 기초한 초기 부적응 도식 또한 자기인지의 심층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험 과제법을 통해 도식을 측정할 것을 제안했지만(Schmidt & Joiner, 2004), 국내 및 해외 문헌 중 실험을 통해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정보처리 과정을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척도뿐만 아니라 SRET를 사용하여 집단 간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반복 검증했으며, 혼술 집단이 사회 음주 집단에 비해 단절과 거절 및 손상된 한계 도식에서 정보처리 편향이 나타남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1, 2에 참여한 혼술 집단의 표본 크기가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다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ristiansen 등(2002)의 연구에서 총 325명의 참여자 중 49명이 혼술 집단이었으며, 이혜규(2017)의 연구에서는 참여자 521명 중 혼술 집단은 40명이었다. 본 연구의 혼술 참여자는 연구 1에서 24명, 연구 2에서는 18명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혼술 집단 내에서도 사회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참여자와 월평균 1회 정도 사회 음주를 병행하는 참여자로 구분되는 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로 혼술을 택하는 이들은 대처 동기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피로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또는 단지 편하게 혼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등 음주 동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여진 등, 2019). 하지만, 본 연구는 혼술 집단에 해당하는 참여자 수가 제한된 실정이기에, 집단 내의 하위 유형을 구분한 추가적인 분석은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음주 유형 집단별 충분한 수의 참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충분한 수의 참여자 모집이 가능하다면 Mohr 등(2001)의 연구 방법과 같이 경험 표집법을 통해 대학생들의 혼술 빈도 및 문제 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생활 사건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 2의 SRET 과제에 ‘자기’와 관련된 초기 부적응 도식

단어만을 포함한 한계가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에 관한 신념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부적응적인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심지아, 2018; Young et al., 2003). 예를 들어, 단절과 거절 도식에 속한 '불신과 학대' 도식은 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해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SRET를 통해 혼술 집단 및 사회 음주 집단과 연관된 초기 부적응 도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념을 평정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Timbremont와 Braet(2005)은 SRET 과제에 화면에 제시된 형용사가 타인을 묘사하는 단어인지 평정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하지만 Timbremont와 Braet(2005)의 연구에서도 타인 평정 과정의 방법론적 한계로 인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초기 부적응 도식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타당한 실험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 보고형 설문 및 SRET 과제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실험 환경이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2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선호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2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비대면 참여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 중 온라인 회의 상의 음성을 켜두고 과제를 실시하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음 및 돌발 상황 등의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회상량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여자들이 5분의 회상 시간 동안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흐트러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넷 접속 환경, 컴퓨터 화면의 크기 및 참여자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엄격하게 통제한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 내에서도 음주 유형에 따라 이질적인 심리적 특성을 가진 하위 유형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문제 음주의 근원 변인인 초기 부적응 도식부터 음주 동기에 이르는 근접 변인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포괄적으로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혼술은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요인이자

문제 음주의 재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알코올 사용장애로의 진행 또는 재발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서울: 국립국어원.

권석만. (1996). 자기인지의 구조와 정보처리과정에 있어서 우울집단의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7-31.

권태연. (2011). 심리사회행동요인을 고려한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1), 187-215.

김영혜. (2009). 병적 도박자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처방식. 인지행동치료, 9(2), 17-33.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김주미, 신민섭, 김은정. (2011).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애착,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방식의 특성. 정서· 행동장애연구, 27(4), 77-100.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아름, 권석만, 김빛나. (2018). 지속적인 문제음주를 보이는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연구와 실제, 4(3), 395-417.

박여진, 오유미, 양유선. (2019). 혼술 경험자의 일반적 음주행태 및 혼술 행태 분석.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1), 25-37.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61-78.

선보람, 이훈진. (2021). 대학생의 음식갈망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상처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21(1), 29-60.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지아. (2018). 초기부적응도식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유정순, 정현희. (2012). 부모의 음주문제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동과의 관계 - 부적응도식과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3(2), 73-87.

윤여미. (1987). 신경증 경향이 긍정-부정 형용사군의 회상 및 재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귀, 박현주. (2009).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43-57.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이혜규. (2017). 음주자 유형별 정신건강 분석 : 혼술 대 집단음주의 비교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8(2), 1-14.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정지형, 장수미. (2019).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학년과 4학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3, 275-307.

질병관리본부. (2017).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정화, 노기영. (2016). 사회적 규범 인식, 평가 성향, 음주의 사회적 편익인식이 대학생들의 음주 행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 연구, 20(3), 60-83.

최진미, 김남재. (2009). 섭식문제가 있는 여대생의 부적응 도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3), 723-740.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03-1019.

Aneshensel, C. S., & Huba, G. J. (1983). Depression, alcohol use, and smoking over one year: a four-wave longitudinal caus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2), 134-150.

Ball, S. A., & Cecero, J. J. (2001). Addicted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Traits, schemas, and presenting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1), 72-83.

Ball, S. A., & Young, J. E. (2000). Dual focus schema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nd substance dependence: Case study result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7*(3), 270-281.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Harper and Row.

Bilevicius, E., Clark, C. C., Johnson, E. A., & Keough, M. T. (2020). Ashamed and Alone—Risk Factors for Alcohol Craving Among Depressed Emerging Adults. *Alcohol and Alcoholism, 55*(5), 540-546.

Borsari, B., & Carey, K. B. (2001). Peer influences on college drinking: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Substance Abuse*, *13*(4), 391-424.

Borsari, B., & Carey, K. B. (2003).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in college drinking: a meta-analytic integr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3), 331-341.

Borsari, B., Neal, D. J., Collins, S. E., & Carey, K. B. (2001). Differential utility of three indexes of risky drinking for predicting alcoho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321-324.

Bourgault, C., & Demers, A. (1997). Solitary drinking: a risk factor for alcohol related problems?. *Addiction, 92*(3), 303-312.

Brotchie, J., Meyer, C., Copello, A., Kidney, R., & Waller, G. (2004). Cognitive representations in alcohol and opiate abuse: The role of core belief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337 - 342.

Buckner, J. D., Eggleston, A. M., & Schmidt, N. B. (2006). Social anxiety and problematic alcohol consumption: The mediating role of drinking motives and situations. *Behavior Therapy, 37*(4), 381-391.

Buckner, J. D., Schmidt, N. B., Lang, A. R., Small, J. W., Schlauch, R. C., & Lewinsohn, P. M. (2008). Specificity of social anxiety disorder as a risk factor for alcohol and cannabis depend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3), 230-239.

Buckner, J. D., & Terlecki, M. A. (2016). Social anxiety and alcohol-related impairment: The mediational impact of solitary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58*, 7-11.

Carver, C. S., & Scheier, M. F. (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s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84-195.

Christiansen, M., Vik, P. W., & Jarchow, A. (2002). College student heavy drinking in social contexts versus alone. *Addictive Behaviors, 27*(3), 393-404.

Conger, J. J. (1956). II.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2), 296-305.

Connolly, S. L., Abramson, L. Y., & Alloy, L. B. (2016).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concurrently and prospectively predict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Evidence from a self-referent encoding task. *Cognition and Emotion, 30*(3), 550-560.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90-1005.

Cooper, M. L., Russell, M., & George, W. H. (1988).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218-230.

Corte, C., & Zucker, R. A. (2008). Self-concept disturbances: Cognitive vulnerability for early drinking and early drunkenness in adolescents at high risk for alcohol problems. *Addictive Behaviors, 33*(10), 1282-1290.

Cox, W.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168 - 180. https://doi.org/10.1037/0021-843X.97.2.168

Creswell, K. G. (2021). Drinking together and drinking alone: A social-contextual framework for examining risk for alcohol use disorde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30*(1), 19-25.

Creswell, K. G., Chung, T., Clark, D. B., & Martin, C. S. (2014). Solitary alcohol use in teens is associated with drinking in response to negative affect and predicts alcohol problems in young adulthood.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5), 602-610.

Creswell, K. G., Chung, T., Wright, A. G., Clark, D. B., Black, J. J., & Martin, C. S. (2015). Personality, negative affect coping, and drinking alon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examine correlates of adolescent solitary drinking. *Addiction, 110*(5), 775-783.

Dainer-Best, J., Lee, H. Y., Shumake, J. D., Yeager, D. S., & Beevers, C. G. (2018). Determining optimal parameters of the self-referent encoding task: A large-scale examination of self-referent cognition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30*(11), 15-27.

Degenhardt, L., Romaniuk, H., Coffey, C., Hall, W. D., Swift, W., Carlin, J. B., ... & Patton, G. C. (2015). Does the social context of early alcohol use affect risky drinking in

adolescents?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5*(1), 1-9.

Derry, P. A., & Kuiper, N. A. (1981). Schematic processing and self-reference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4), 286-297.

Dobson, K. S. (Ed.). (2010).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3rd ed.). Guilford Press.

Dobson, K. S., & Shaw, B. F. (1987). Specificity and stability of self-referent encoding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1), 34-40.

Dvorak, R. D., Pearson, M. R., & Day, A. M. (2014).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of acute alcohol use disorder symptoms: associations with mood, motives, and use on planned drinking days.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2*(4), 285-297.

D'Zurilla, T. J., Nezu, A. M., & Dobson, K. S. (2010).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Guilford Press.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1), 33-54.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2), 186-193.

Feil, J., & Hasking, P.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oping strategies and alcohol use. *Addiction Research & Theory, 16*(5), 526-537.

French, C. L. (2007).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ce coping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xiety and depression*(Publication No. 3308)[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Theses Digitization Project.

Fromme, K., & Rivet, K. (1994). Young adults' coping style as a predictor of their alcohol use and response to daily ev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85-97.

Garofalo, C., & Wright, A. G. (2017). Alcohol abuse, personality disorders, and aggression: The quest for a common underlying mechanis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1-8.

Goldstein, A. L., Haller, S., Mackinnon, S. P., & Stewart, S. H. (2019).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emotion dysregulation, interpersonal difficulties and alcohol problems in emerging adulthood. *Addiction Research & Theory, 27*(2), 130-138.

Goldstein, B. L., Hayden, E. P., & Klein, D. N. (2015). Stability of self-referent encoding task performance and associations with change in depressive sympto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Cognition and Emotion, 29*(8), 1445-1455.

Gonzalez, V. M. (2012). Association of solitary binge drinking and suicidal behavior among emerging adult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3), 609-614.

Gonzalez, V. M., Collins, R. L., & Bradizza, C. M. (2009). Solitary and social heavy drinking, suicidal ideation, and drinking motives in underage college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34*(12), 993-999.

Gonzalez V. M., & Skewes M. C. (2013). Solitary heavy drinking, social relationships,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in college drinker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21*, 285 - 294.

Halim, A., Hasking, P., & Allen, F. (2012). The role of social drinking motiv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orms and alcohol consumption. *Addictive Behaviors, 37*(12), 1335-1341.

Hamilton, H. R., Armeli, S., & Tennen, H. (2020). Affect and alcohol: the moderating role of episode-specific drinking motives.

Addictive Behaviors, 110, 106-521.

Hasking, P., Lyvers, M., & Carlopio, C.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behaviour. *Addictive Behaviors, 36*(5), 479-487.

Heppner, P. P., Cook, S. W., Wright, D. M., & Johnson, W. C.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279-293.

Heppner, P. P., Witty, T. E., & Dixon, W. A. (2004).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human adjustment: A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using the Problem Solving Invento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3), 344-428.

Hull, J. G. (1981). A self-awareness mod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6), 586 - 600. https://doi.org/10.1037/0021-843X.90.6.586.

Jamison, L. (2021). 리커버링 : 중독에서 회복까지 그 여정의 기록 (오숙은, 역). 문학과 지성사. (2019).

Janson, D. L., Harms, C. A., Hollett, R. C., & Segal, R. D. (2019).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regard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an Australian Adult alcohol dependent clinical sample. *Substance Use & Misuse, 54*(2), 177-184.

Karwacki, S. B., & Bradley, J. R. (1996). Coping, drinking motives, goal attainment expectancies and family models in relation to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rug Education, 26*(3), 243-255.

Kayla D. S., & Jennifer C. V. (2016) The Interactiv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Age, and Self-Criticism in Predicting Hazardous Drinking. *Substance Use & Misuse, 51(*10), 1342-1352, DOI: 10.3109/10826084.2016.1168448

Keough, M. T., O'Connor, R. M., Sherry, S. B., & Stewart, S. H.

(2015). Context counts: Solitary drinking explains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in undergraduates. *Addictive Behaviors, 42*, 216-221.

Kessler, R. C., & Price, R. H. (1993). Primary prevention of secondary disorders: a proposal and agenda.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5), 607-633.

Khantzian, E. J. (1997).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of substance use disorders: A reconsideration and recent application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4*(5), 231-244.

Klein, S. B., Loftus, J., & Burton, H. A. (1989). Two self-reference effects: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self-descriptiveness judgments and autobiographical retrieval in self-referent enco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853 - 865. doi:10.1037/0022-3514.56.6.853.

Kuiper, N. A., & MacDonald, M. R. (1982). Self and other perception in mild depressives. *Social Cognition, 1*(3), 223-239.

Kuntsche, E., Knibbe, R., Gmel, G., & Engels, R. (2005). Why do young people drink? A review of drinking mot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7), 841-861.

Kushner, M. G., Sher, K. J., & Beitman, B. D. (1990). The relation between alcohol problems and the anxiety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6), 685 - 695. https://doi.org/10.1176/ajp.147.6.685.

Laurent, J., Catanzaro, S. J., & Callan, M. K. (1997). Stress, alcohol-related expectancies and coping preferences: a replication with adolescents of the Cooper et al.(1992) mode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6), 644-651.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eMoult, J., & Gotlib, I. H. (2019). Depression: A cognitive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69*, 51-66.

Lin, S. Y., Fried, E. I., & Eaton, N. R. (2020). The association of life stress with substance use symptoms: A network analysis and repl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9*(2), 204-214.

Luoma, J. B., Pierce, B., & Levin, M. E. (2020). Experiential avoidance and negative affect as predictors of daily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4*(3), 421-433.

Magee, W. J., Eaton, W. W., Wittchen, H. U., McGonagle, K. A., & Kessler, R. C. (1996). Agoraphobia, simple phobia, and social phobia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2), 159-168.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78.

Maté, G. (2008). *In the realm of hungry ghosts: Close encounters with addiction*. Random House Digital, Inc..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McGinn, L. K., Young, J. E., & Sanderson, W. C. (1995). When and how to do longer term therapy… without feeling guilty.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1), 187-212.

Mills, C. J. (1983). Sex-typing and self-schemata effects on memory and response la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63 - 172. doi:10.1037/0022-3514.45.1.163.

Mohr, C. D., Armeli, S., Tennen, H., Carney, M. A., Affleck, G., & Hromi, A. (2001). Daily interpersonal experiences, context, and alcohol consumption: Crying in your beer and toasting good ti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489-500.

Mojallal, M., Simons, R. M., & Simons, J. S. (2021).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hood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Motivation and Emotion, 45*(2), 197-210.

Neighbors, C., Larimer, M. E., Markman Geisner, I., & Knee, C. R. (2004). Feeling controlled and drinking motives among college students: Contingent self-esteem as a mediator. *Self and Identity, 3*(3), 207-224.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O'Hara, R. E., Armeli, S., & Tennen, H. (2015). College students' drinking motives and social-contextual factors: Comparing associations across levels of analysi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9*(2), 420-429.

Pauwels, E., Claes, L., Smits, D., Dierckx, E., Muehlenkamp, J. J., Peuskens, H., & Vandereycken, W. (2013).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in a Flemish inpatient eating disorder and alcohol and substance use disorder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3), 647-656.

Perkins, H. W. (1997). *College student misperceptions of alcohol and other drug norms among peers: Exploring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s.* The Higher Education Center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even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Pierce, T., & Lydon, J. (1998). Perceived available support as a relational schema: Testing the buffering effects of activated and chronic interpersonal expec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441-1448.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ezaei, M., & Ghazanfari, F. (2016). The role of childhood trauma, early maladaptive schemas, emotional schemas and experimental avoidance on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iatry Research, 246*, 407-414.

Riso, L. P., du Toit, P. L., Stein, D. J., & Young, J. E. (Eds.). (2007). *Cognitive schemas and core beliefs in psychological problems: A scientist-practitioner guid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561-000.

Roper, L., Dickson, J. M., Tinwell, C., Booth, P. G., & McGuire, J. (2010). Maladaptive cognitive schemas in alcohol dependence: Changes associated with a brief residential abstinence progra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07-215.

Russell, J. A., & Bond, C. R. (1979). Beliefs among college students on settings and emotions conducive to alcohol and marijuana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4*(7), 977-986.

Schmidt, N. B., & Joiner, T. E. (2004). Global maladaptive schemas, negative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65-72.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3), 295-321.

Segal, Z. V.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47-162.

Shorey, R. C., Elmquist, J., Anderson, S., & Stuart, G. L.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mong adults seeking residential 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47*(3), 230-238.

Shorey, R. C., Stuart, G. L., & Anderson, S. (2013). Early maladaptive schemas among young adult male substance abusers: A comparison with a non-clinical group.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44*(5), 522-527.

Simons, J. S., Dvorak, R. D., Batien, B. D., & Wray, T. B. (2010). Event-level associations between affect, alcohol intoxication, and acute dependence symptoms: Effects of urgency, self-control, and drinking experience. *Addictive Behaviors, 35*(12), 1045-1053.

Simons, R. M., Sistad, R. E., Simons, J. S., & Hansen, J. (2018).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chemas and alcoho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78*, 1-8.

Skrzynski, C. J., & Creswell, K. G. (2020). Associations between solitary drinking and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alcohol problems, and drinking to cope motiv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Addiction, 115*(11), 1989-2007.

Skrzynski, C., Creswell, K. G., Bachrach, R. L., & Chung, T. (2018). Social discomf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in response to negative affect and solitary drinking in underage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78*, 124-130.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Publication No. 3160244)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Strube, M., Berry, J. M., Lott, C., Fogelman, R., Steinhart, G., Moergen, S., & Davison, L. (1986). Self-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Type A and B behavior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70 - 180. doi:10.1037/0022-3514.51.1.170.

Taylor, L., & Ingram, R. E. (1999). Cognitive reactivity and depressotypic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2), 202-210.

Timbremont, B., & Braet, C. (2004). Cognitive vulnerability in remitted depressed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4), 423-437.

Timbremont, B., & Braet, C. (2005). Selective information-processing in depressed children and adolescents: Is there a difference in processing of self-referent and other-referent information?. *Behaviour Change, 22*(3), 143-155.

Townshend, J. M., & Duka, T. (2003). Mixed emotions: alcoholics' impairments in the recognition of specific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Neuropsychologia, 41*(7), 773-782.

Tucker, J. S., Ellickson, P. L., Collins, R. L., & Klein, D. J. (2006). Does solitary substance use increase adolescents' risk for poor psychosocial and behavioral outcomes? A 9-year longitudinal study comparing solitary and social user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0*(4), 363-372.

van Wijk-Herbrink, M. F., Bernstein, D. P., Broers, N. J., Roelofs, J., Rijkeboer, M. M., & Arntz, A. (2018).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share a common predictor: The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re mediated by coping responses and schema mod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6*(5), 907-920.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Wechsler, H., Lee, J. E., Kuo, M., & Lee, H. (2000). College binge drinking in the 1990s: A continuing problem results of th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99 College Alcohol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199-210.

Wei, M., Heppner, P. P., & Mallinckr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38-447.

Williams, C. L., Vik, P. W., & Wong, M. M. (2015). Distress tolerance in social versus solitary college student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50*, 89-95.

Windle, M., & Windle, R. C. (1996). Coping strategies, drinking motiv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middle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with academic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4), 551-560.

Young, J. E. (1994).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Rev. ed.). Professional Resource Press/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Guilford Press.

부 록

부록 1. 한국형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 척도(AUDIT-K)
부록 2. 음주 유형 구분 척도
부록 3. 음주 동기 척도(DMQ)
부록 4. 도식 질문지 단축형 척도(YSQ-S)
부록 5. 문제중심 대처 양식 척도(PF-SOC)
부록 6.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S-D)
부록 7.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SIAS)
부록 8.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
부록 9. 음주 갈망 척도
부록 10. 자기 부호화 검사(SRET) 형용사 단어

부록 1. 한국형 알코올 장애 간이 선별 검사 척도(AUDIT-K)

▶ 다음 문항들은 당신이 술을 마시는 동안, 혹은 마신 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경험한 것에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답 변				
1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전혀 안 마심	월 1회 미만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2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전혀 안 마심	소주 반 병 이하	소주 반 병 정도	소주 반병과 1병 사이	소주 1병 이상
3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4	지난 1년간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일어나기 위해 해장술을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지난 1년간 있었다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지난 1년간 있었다

부록 2. 음주 유형 구분 척도

▶ 아래 문항들은 지난 1년 동안 특정 음주 상황에서의 음주 빈도와 음주 의향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하는 항목 한 가지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소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 한 가지를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주로 혼자 술을 마시는 편이다.

② 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편이다.

③ 혼자서도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술을 마신다.

④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2. 다음은 혼자 술을 마신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예: 식당 혹은 외부 장소에서 혼자 술 마심, 집에서 혼자 술 마심)

2-1. 지난 1년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① 한 번도 마신 적 없음

② 월 1회 미만

③ 월 1회

④ 월 2~3회

⑤ 주 2~3회

⑥ 주 4회 이상

2-2. 평소 혼자 술을 마시기보다는 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시는 편이나, ‘코로나19(COVID-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u>의도치 않게</u>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① 한 번도 마신 적 없음

② 월 1회 미만

③ 월 1회

④ 월 2~3회

⑤ 주 2~3회

⑥ 주 4회 이상

3. 지난 1년 동안, <u>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u> 술을 마신 경험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예: 일과 관련된 회식, 친구 및 지인들과의 사교모임, 일 혹은 사교 외 기타 이유의 다른 사람들과의 음주)

① 한 번도 마신 적 없음

② 월 1회 미만

③ 월 1회

④ 월 2~3회

⑤ 주 2~3회

⑥ 주 4회 이상

부록 3. 음주 동기 척도(DMQ)

▶ 다음에 제시되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고,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각각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마시지 않는다	거의 마시지 않는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거의 항상 마신다
1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2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1	2	3	4	5
3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을 때	1	2	3	4	5
4	슬플 때	1	2	3	4	5
5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6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1	2	3	4	5
7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고 싶을 때	1	2	3	4	5
8	스트레스를 받을 때	1	2	3	4	5
9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10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11	화가 났을 때	1	2	3	4	5
12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13	술 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 (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14	기분이 울적할 때	1	2	3	4	5
1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16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부록 4. 도식 질문지 단축형 척도(YSQ-S)

▶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아닌 감정적으로 끌리는 곳을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거의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나를 보살펴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1	2	3	4	5	6
2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	2	3	4	5	6
3	이제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1	2	3	4	5	6
4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심정을 이해해주거나 또는 내 속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늘 없었다.	1	2	3	4	5	6
5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게 올바른 충고나 방향을 제시해줄 만한 든든한 사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6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6
7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게 될까봐 마음을 졸이게 된다.	1	2	3	4	5	6
8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만 같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1	2	3	4	5	6
9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1	2	3	4	5	6

10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멀리해 버리곤 한다.	1	2	3	4	5	6
11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1	2	3	4	5	6
12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게 안하면, 그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해칠 것이다.	1	2	3	4	5	6
13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건 시간문제다.	1	2	3	4	5	6
14	나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기나 속셈에 대해 의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6
15	나는 대개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찾는다.	1	2	3	4	5	6
16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6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다.	1	2	3	4	5	6
18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독한 사람이다.	1	2	3	4	5	6
19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20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21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1	2	3	4	5	6
22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1	2	3	4	5	6
23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거나, 관심받거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1	2	3	4	5	6
24	나에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단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25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수용받기 힘든 마당에,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1	2	3	4	5	6
26	일이나 성취 면에서 나는 남들에 비해 능력이 뒤쳐진다.	1	2	3	4	5	6
27	성취 면에서 보자면 나는 무능하다.	1	2	3	4	5	6
28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일과 성취영역에서 나보다 능력이 있다.	1	2	3	4	5	6
29	일을 할 때 내가 발휘하는 재능은 남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1	2	3	4	5	6
30	나는 남들에 비해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	1	2	3	4	5	6
31	혼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난관을 헤쳐 나갈 자신이 없다.	1	2	3	4	5	6
32	평상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의존적인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6
33	나는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1	2	3	4	5	6
34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리는 판단은 믿을 수 없다.	1	2	3	4	5	6
35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1	2	3	4	5	6
36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1	2	3	4	5	6
37	언제라도 재난(자연적, 범죄적, 경제적 또는 의료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38	나는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아 걱정이다.	1	2	3	4	5	6
39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된다.	1	2	3	4	5	6

40	의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내 몸에 심각한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1	2	3	4	5	6
41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42	부모와 나는 각자의 생활과 문제들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43	사소한 것까지 같이 나누지 않으면, 부모와 나는 서로에 대해 배신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1	2	3	4	5	6
44	나 스스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부모가 내 삶을 대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1	2	3	4	5	6
45	나는 부모와 너무 뒤얽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다.	1	2	3	4	5	6
46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문제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47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앙갚음이나 거부를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48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1	2	3	4	5	6
49	늘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왔기 때문에, 정작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6
50	사람들에게 내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51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내가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6
52	나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1	2	3	4	5	6

53	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	1	2	3	4	5	6
54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문제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1	2	3	4	5	6
55	다른 사람들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는 많이 일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일하지 못한다고 본다.	1	2	3	4	5	6
56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1	2	3	4	5	6
57	타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1	2	3	4	5	6
58	나는 온정적이게 되는 것과 자발적이게 되는 것이 힘들다.	1	2	3	4	5	6
59	나는 자신을 너무 통제해서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60	사람들은 나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본다.	1	2	3	4	5	6
61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2	3	4	5	6
62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충분해”라는 말에 만족할 수 없다.	1	2	3	4	5	6
63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1	2	3	4	5	6
64	나는 성취하고 일을 끝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6
65	나는 쉽게 의무에서 해방될 수 없고, 내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	1	2	3	4	5	6
66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67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가해지는 어떠한 제한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	2	3	4	5	6
68	강요를 당하거나 원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면,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6
69	나는 사람들이 따르는 통상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6
70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다.	1	2	3	4	5	6
71	지루한 일들은 끝까지 참고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5	6
72	목표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1	2	3	4	5	6
73	먼 훗날의 목표를 위해 눈앞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참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74	신나거나 즐겁지 않은 일은 득이 되는 일이라도 참고 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75	나는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지켜나갈 수 없다.	1	2	3	4	5	6

부록 5. 문제중심 대처 양식 척도(PF-SOC)

▶ 다음 문항은 문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양식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거의 없음	가끔	약 절반 정도	종종	거의 항상
1	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확실하지 않다.	1	2	3	4	5
2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만큼 오랫동안 내 행동을 유지하지 않는다.	1	2	3	4	5
3	과거에 비슷한 문제들을 풀었던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4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들을 파악함으로써 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5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내 문제와 관련된 일도 포기해버린다.	1	2	3	4	5
6	내 문제에 관한 가능한 각각의 해결책들이 가져올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7	내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문제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1	2	3	4	5
8	내 문제에 대해 계속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때, 나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2	3	4	5
9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된다.	1	2	3	4	5
10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아무 관련이 없는 (잡)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11	미리 생각함으로써 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	1	2	3	4	5
12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 문제를 생각한다.	1	2	3	4	5
13	내 결론이 정확한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그의 동기와 감정을 잘못 읽는다.	1	2	3	4	5

14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내 감정을 더 검토한다.	1	2	3	4	5
15	나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1	2	3	4	5
16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즉, 마음이 산만하다).	1	2	3	4	5
17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안 계획이 있다.	1	2	3	4	5
18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한다.	1	2	3	4	5

부록 6.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S-D)

▶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은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극히 드물다 (1일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종종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그랬다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부록 7.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SIAS)

▶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0	1	2	3	4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0	1	2	3	4
3	나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0	1	2	3	4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5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0	1	2	3	4
6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0	1	2	3	4
7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된다.	0	1	2	3	4
8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0	1	2	3	4
9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10	이야깃거리를 쉽게 생각해낸다.	0	1	2	3	4
11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0	1	2	3	4
12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13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14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0	1	2	3	4

15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0	1	2	3	4
16	대화 도중 부적절한 말을 할 것 같다.	0	1	2	3	4
17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0	1	2	3	4
18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0	1	2	3	4
19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할 지 망설인다.	0	1	2	3	4

부록 8.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

▶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이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 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부록 9. 음주 갈망 척도

▶ 다음은 현재 느끼는 음주 갈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답해주십시오.

1.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술을 마시고 싶습니까? 0점(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에서 6점(매우 마시고 싶다) 사이의 점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마시고 싶다
0	1	2	3	4	5	6

2. 오늘 술을 마시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지 아래의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혼자 술을 마시고 싶다.

②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함께 마시고 싶다.

부록 10. 자기 부호화 검사(SRET) 형용사 단어

분류	도식 영역(평균음절수)	형용사 단어
긍정형용사 (25개)		재치있는, 관대한, 부지런한, 따스한, 유능한, 지적인, 매력적인, 현명한, 창의적인, 정직한, 똑똑한, 신중한, 성실한, 자신만만한, 낙관적인, 자율적인, 주체적인, 자발적인, 용감한, 독립적인, 우수한, 통제력 있는,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는, 친근한
도식관련형용사 (25개)	단절과 거절 (4.0)	외로운, 소외된, 버림받은, 사랑받지 못한, 의심하는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3.4)	의존적인, 실패한, 무력한, 개성없는, 서투른
	타인 지향성(5.0)	순종적인, 인정받고 싶은, 자기희생적인, 복종하는, 남을 돌보는
	손상된 한계(4.8)	자기중심적인, 충동적인, 참을성 없는, 인내심 없는, 이기적인
	과잉경계와 억제(3.8)	완벽주의적인, 비관적인, 엄격한, 냉담한, 가혹한
초두효과 제거를 위한 형용사		튼튼한, 우유부단한, 수용받는, 예민한
본시행 전 연습시행 단어		장난기많은, 무뚝뚝한, 솔직한, 내성적인

Abstrac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litary and Social Drinkers: Focusing on Early Maladaptive Schemas

Hyerin Jeo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itary drinking among undergraduates can be a risk factor for alcohol use disorder, and previous studies assume solitary drinkers and social drinkers differ in drinking motives,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in a Korean population, and moreover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in how they classify drinking types.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groups regard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coping style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how the activation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ffect changes in emotion and alcohol

craving.

Study 1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four groups: solitary drinking group, social drinking group,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group, and non-problematic drinking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elf-report data of 315 college students. The solitary drinking group scored higher in all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than the social drinking group.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solitary drinking group had a higher possibility to exhibit suppressive coping styles, reactive coping styles, and also a higher coping motive than the social drinking group. In addition, the solitary drinking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compared to the social drinking group.

Study 2 applied an experimental method to identify early maladaptive schemas associated with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groups by using the Self-Referent Encoding Task(SRET) and an incidental recall task. A total of 268 college students completed a screening questionnaire, and consequentially a sample data of 66 participants was analyzed. The solitary drinking group(n = 18) showed faster reaction time in endorsing 'disconnection and rejection' and 'impaired limits' schemas than the social drinking group(n = 48), while social drinking group more frequently endorsing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 words. After the experiment, alcohol craving of the solitary drinking group decreased, while negative emotions decreased in social drinking group.

The present study supports that there are distinctions between solitary drinkers and social drinkers in early maladaptive schemas, coping styles, drinking motive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particular, solitary drinkers showed a greater bias in information processing related to 'disconnection and rejection' and 'impaired limits' schemas compared to social drinkers. The present study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psychological education on risk factors tailored to drinking types.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Solitary drinking, Social drink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Coping styles, Depression, Social anxiety

Student Number : 2020-22074